

글 심는 순서 Contents

- 04 **나마스떼, 동게스와리**
더 공부하고 싶은 동게스와리 학생들
- 08 **캄보디아 답사**
캄보디아 답사기
- 11 **특집 _ 긴급구호**
아똥 미안마!!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와서
중국 쓰촨성 지진 JTS활동보고
- 17 **국내소식 1 _ 어린이날 캠페인**
당신의 성금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봉사의 참의미 깨친 구정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 24 **국내소식 2 _ 북한식량 지원 긴급 캠페인 ‘미안하다 동포야’**
북녘동포를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릴레이 동영상에 참여해주신 분들
지역별 활동소감문
- 32 **국내소식 3 _ 선적식**
JTS 북한 식량 긴급구호, 밀가루 200톤 선적식 가져
- 34 **따뜻한 이웃**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돼지저금통
- 36 **후원가족 이야기**
와이즈만 해누리가 펼치는 “인도 친구들에게 옷 선물하기” 캠페인
- 38 **현장소식**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국내
- 42 **후원안내**
신규회원 ·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특별후원금 · 물품후원 · 미처리자
CMS 신청안내



더 공부하고 싶은 둥게스와리 학생들

김혜원 인도JTS 자원활동가

인도의 뜨거운 무더위 때문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학교 등교 시간을 바꾸어 아침 일찍 수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시간 이상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햇살은 학교로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좋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더위를 이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부진아를 위한 특별한 학생입니다. 처음 교사들은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1, 2,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힌디어 전혀 읽지 못하거나 덧셈과 뺄셈 등 기초가 부족하고, 영어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상급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 특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 수업에 뽑히지 못한 아이들이 찾아와서는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였습니다.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다른 아이들은 아침 간식만 주는데 점

심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부러운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평균 30%의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불가촉천민 아이들이거나 여자 아이들입니다. 아직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나 겨울철 관광객들이 오면 우르르 몰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최소한 5학년까지 졸업할 수 있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교사 5명과 함께 켈커타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3시간쯤 떨어진 도시인 카라그푸르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학교를 다니

카라그푸르 중도탈락생 캠프에서 카드로 뱅갈어를 공부하는 학생





다 그만두거나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프로그램(main-streaming)을 잘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잘 닦여진 도시를 지나 도시의 외곽에는 작은 학교가 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30여명쯤 되는 아이들이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보기로 하였습니다. 도착하였을 때 아이들은 작은 석판에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오리, 연꽃, 물고기, 물살 등을 진지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영어 STAG(기초교육을 위한 단계 학습 프로그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셈하기, 벵갈리 읽기, 쓰기, 영어 말하기, 영어 단어 쓰기 등의 수업이 하루 종일 뻘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스스로 놀이하듯이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

다. 신기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공부가 싫어서 그만둔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길면 1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기초 원리를 깨우쳐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도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학교 공부를 잘 하지 못하거나 학습 능력이 부진하거나, 혹은 집안이 가난하여 멀리 텔리까지 일하러 가면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둥게스와리에 돌아가면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2명의 교사는 카드 만드는 방법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 왔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8개의 불가촉천민 비율이 높은 마을을 돌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아이들을 조사할 계획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을 하기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수자타의 아름다운 마음을 직접 실천해 보기 위해 16일간 쌀 모으기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고려하여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은 한 톨, 2학년은 두 톨, 3학년은 세 톨.....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이 반가워하였습니다. 매일 쌀을 모았는데, 아이들 두 손에 담겨진 쌀 한 톨, 두 톨을 볼 때면 마음에 뿌듯함과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 조회 시

간에 쌀 모으기를 잠시 잊어버리면 아이들은 언제나 “선생님, 쌀 모아야 해요!”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두 손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6일간 정성껏 모은 쌀은 96kg가 되었습니다. 이 날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한 톨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양을 만들 수 있는구나 새삼 알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급생들과 16개 마을의 어려운 독거노인의 집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쌀은 수자타 아카데미 900명이 16일간

쌀을 모아서 즐거워하는 남학생들





쌀을 모으고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



독거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는 상급반 학생들



두 손에 담겨있는 쌀

모은 쌀이에요. 900명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 밥을 드시고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독거 노인 집에 가서 집안 청소와 빨래, 일거리를 이것저것 도와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다들 다른 마을에 다녀온 아이들과 함께 자신은 어떤 집에 갔었는지 무슨 쉬람단을 하였는지 자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말썽을 많이 부리던 아이들 역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내 손으로 직접 쌀을 모으고, 도우니 너무 즐거워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기회를 만나면 스스로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불평이 많았지만 누군가를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니 어른이 된 모습입니다.

가장 가난한 마을, 버려진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함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JTS]**

해외구호사업 개척지

캄보디아 답사기

노재국 JTS 활동가

JTS는 오랜 내전과 빈곤의 상태에 있는 캄보디아 지원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노재국 활동가의 답사기를 수록합니다.

JTS에서는 2008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답사를 하고 왔다. 김경희, 정철상, 권은희,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은 프놈펜에서 합류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많은 NGO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톨릭 예수회의 신부님들이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 직업 교육, 도시 빈민 지원을 위한 직업 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다.





수도인 프놈펜 인근에도 도시 빈민들이 집단촌을 이루며 많이 몰려 있어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서 식수난, 전염병의 위험에 처한다. 시골 길을 가자면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승객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자주 본다.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오토바이조차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룻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 목적지에 간다.

화재로 소실된 학교가 있었던 곳을 가보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정부에서는 학교를 지어줄 엄두를 못내고 있어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4~5km를 걸어서 이웃 학교를 가야만 한다. 마을 이장님을 만나 만약 학교를 짓기 위한 자재를 공급해 주면 마을 사람들이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마을 사람들과 의논을 하더니 확신이 없어 하신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내란과 외침 때문인지 사람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이웃과도 서로 대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프레이 뱅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곳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되어있다. 우선 차를 타고 스쳐가면서 보아도 농지에는 물이 차있고 무엇을 심지도 않은 채 가난의 흔적이 쉽게 보이는 지역이다.

트롤까엥이라는 마을의 한 농가에 들어갔는데 이 부근 마을에서는 중류 정도는 될 것 같은 가정이었다. 이 마을에는 98가구에 420여명이 살고 있는데 주 소득원이 농업이라지만 지대가 낮아서 우기에는 농토에 물이 차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사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약 300~500 달러 정도이고 식구는 6명이라고 하니 한 가족이 하루 1달러 정도로 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런 수입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니 그래서 기회만 되면 국경을 넘어서 막노동이나 도시로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농토를 가지고도 물 조절이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치고 농사 인력은 점점 빠져 나가는 악 순환의 연속인 것 같다.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논 농사를 지을 때 벼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직접 파종을 하는데 프레이 뱅의 한 농가에서는 육묘를 해서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제대로 된 식수 공급이 없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고,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도 많다. 지금은 지뢰가 많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경 산간 지역에는 지뢰가 남아있어 사고가 자주 일어 난다고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두려워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무거운 숙제로 남는다. 아직도 캄보디아 전역에서는 이백만의 학살, 크메르루즈의 학정, 공산 치하에서의 만행들이 살아 숨 쉬는듯한데 돌아서 나오는 발걸음이 편하지가 않다. **JTS**

사진 우측에는 전에 학교가 있었는데 화재로 손실되었다.



아뚜 미안마!!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와서

권 완 수 JTS 국제긴급구조단

조급함이 먼저 다가왔다. 처음 기사를 접했던 것은 지난 5월 6일. 실제로 사이클론이 미얀마를 강타한지 3일이나 지난 후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얀마 정부를 탓하기 전에 3일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파견자로 내가 지목되었다. 늘 긴급구호 파견을 희망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 순간이 올지는 몰랐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긴급구호의 의지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파견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비자문제로 미얀마 대사관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양곤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첫 파견인데다가 열악한 환경의 피해지역, 도무지 상황이 상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구호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모습





헬기에서 본 이라와디 지역 사진. 공중에서 내려다 본 이라와디는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하니 다른 걱정들은 일시에 사라져버렸다.

공항을 빠져나와서 양곤 시내를 돌아보니 거대한 나무들이 길거리 이곳저곳에 널려있었다. 지붕들은 대부분이 날아가고 전봇대는 모두 쓰러져있었다. 사이클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최대 도시인 양곤이 이정도이니 분명 다른 지역은 피해

가 더욱 극심하리라. 양곤 시내를 뒤로하고 이곳저곳에 들러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에서는 통신과 전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열악했고 교통수단을 구할 수가 없었다. 정부의 통제로 차량대여비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활동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최대피해지역인 이라와디 지역으로는 외국인이 아예 출입할 수가 없었고,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추방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방법 찾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 아닌가?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도울 것인가? 이런 원을 세운 덕분인지 기회가 찾아왔다. 현지에서 만난 현지인이 우리를 돕겠다고 선뜻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과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한국말도 아주 능숙했다.

지금 최대 피해지역은 이라와디의 라부타와 보글리 지역.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집 뿐 아니라 모든 걸 잃은 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 바로 쌀이었다. 물과 바람에 모든 것이 날아가 당장 먹을 식량이 없단다. 우리는 현지인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이라와디 지역으로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하는 양은 30톤. 민간 지원단체로는 결코 적지

라부따 지역 피
해상황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브리핑 모습



않은 양이었다. 그 중 10톤은 차로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배로 운반하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피해지역 중 하나인 보글리 지역의 현지인 친척과 연락이 닿았고 그 지역에서 쌀을 나눠주기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출발 당일. 곳곳에서 검문을 한다는 소식과 외국인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당한다는 소식

들이 들렸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현지인으로 가장해서 여러 사람들과 피해지역으로 들어갔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마다 현지인의 임기응변으로 무사히 넘어갔다. 그렇게 여러 번을 지나 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피해상황은 심각했다.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마을은 그 곳에서도 배타고 10분정도 더 들어가는 마을이었다. 도착한 마을의 상황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야자수는 모두 부러져 집을 덮쳤고, 쌀을 가공하던 공장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집들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는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쌀이지만 이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리라. 순식간에 쌀이 모두 동났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도 도울 곳은 많았다. 추가지원을 계획하는 수밖에 없었다.

무사히 1차 지원을 마치고 바로 2차 지원을 계획했다. 2차 지원 때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검문을 피해 피해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좀 더 멀고 어려운 지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닿기 어렵다면 분명히 지원을 못 받았을 것이기에. 이번에 배를 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들어갔다. 강가에 마을들이 있었고 하나같이 이번 사이클론으로 90%이상의 집들이 부서져



쌀을 받아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버렸다. 그리고 물소들이 다 죽고 벼씨들이 다 젖거나 날아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지금 뿐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도 예상되었다. 아시아의 곡창지대가 이제 식량이 부족한 피해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리저리 마을을 다니면서는 지원하기가 사실 어려웠다. 배를 타고 2시간씩 다녀야 하고 역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속에서 쌀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강 수위가 낮아 들어갈 수조차 없는 마을들도 있었다.

사실 우리는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가했었다. 정부관료들에게 브리핑도 듣고 함께 피해지역 방문도 했었다. 외국에서 지원자금을 받기위한 일종의 행사였다.

모든 지원을 마치고 양곤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미얀마의 들판은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빠른 시일 안에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호활동과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같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함께해요, 미얀마! 아뚜 미얀마!! **JTS**

중국 쓰촨성 지진 JTS 활동보고

심 성 혜 북경정토회 총무



지난 5월12일 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JTS는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김연광 참사관을 면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호성금 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지역 답사결과입니다.

• 5월 21일 방문지 도강언 지역

도강언에서는 4,000명 정도 사망했고, 구조작업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고 방역작업 중이었으며 전기, 수도, 가스도 많이 복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5월 22일 답사지 면양시내, 안현 일부, 복천 일부

면양시내는 별 다른 피해사항은 없었고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안현은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10명이 있었으나 치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복천은 이재민이 너무 많아 세끼 주던 밥을 하루 1명의 물과 과자 1개 제공하고 있었으며 안현과 복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천막이라고 합니다.



중국대사관 김연광 참사관에게 성금 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는 JTS 법륜 이사장님,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

• 5월 23일 답사지 덕양시, 면족시, 스팡시-잉화진

기본적으로 급한 상황은 지나갔고 현재 일반적인 물품들은 충분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주 시에서는 지진 피해로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광장 앞에서 시위 중이었습니다. 면족 시도 주변 산 근처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었으나 우선은 검증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팡시 잉화진도 주민 대부분 임시천막에 주거하며 기본적인 물품은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 5월 24일 답사지 스팡시 일부, 평조우시

스팡시는 인구 43만명 중 30만명이 피해를 볼 정도로 산악지대 근접 마을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주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주거문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 사이에서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조우시는 주택파손으로 천막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답사 지역의 경우 모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잘 되고 있었으며, 중국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고 지역의 피해상황도 언론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JTS는 이번 답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S]



피해복구가 한참 진행 중인 도강언 시내 모습



지진으로 건물이 파괴된 복천 시내 모습



명주시 광장에서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시위하는 모습

당신의 **성금**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2008. 5. 5

세계어린이빈곤퇴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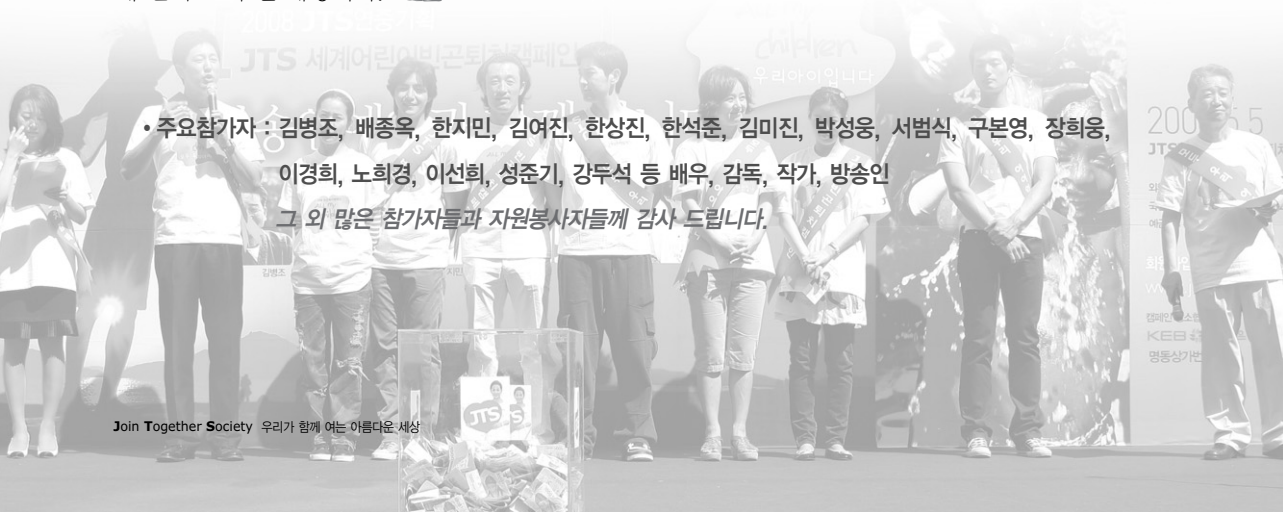




JTS는 5월 5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세계어린이 빈곤퇴치 모금캠페인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All my children!)’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MBC 주말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의 배종옥과 사극 ‘이산’의 한지민, 김여진, 한상진, 드라마 작가 노희경, 이선희, 성준기PD, 한석준 아나운서 등 방송인 30여 명이 명동 외환은행 앞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석했다. 김병조(개그맨), 김미진(한국경제TV앵커)씨가 사회자로 나선 이날 자리에는 적극적인 연예인들의 거리 모금활동으로 1시간 만에 3백14만5천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밖에도 서울 인사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이 펼쳐져 총 16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방송연예인들은 대중들로 부터 받은 인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이들은 또한 미리 모은 5백만원을 태안반도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JTS에 기탁했다.

5월 5일 전국에서 모인 금액은 인도와 북한, 필리핀 등지에서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액 쓰여 질 예정이다. [JTS]



• 주요참가자 : 김병조, 배종옥, 한지민, 김여진, 한상진, 한석준, 김미진, 박성웅, 서범식, 구본영, 장희웅, 이경희, 노희경, 이선희, 성준기, 강두석 등 배우, 감독, 작가, 방송인 그 외 많은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봉사의 참의미 깨친 구정고등학교 학생들



5월 1일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어린이날 거리 모금캠페인을 위해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시험이 끝난 뒤라 만사를 제쳐두고 쉬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JTS 홍보영상물을 보여주고 거리모금도 시연해 보였다. 아이들이 다소 지친 상태여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5월 4일 인사동 조계사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거리모금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걱정했던 것처럼 소극적이고 머뭇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도 적극적이고 진지해져 갔다. 나중에는 마치는 시간도 잊은 채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달라며 외치고 또 외치는 학생들을 보며 봉사의 참의미를 깨달아 가는 사랑스런 학생들을 보았다.

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았다.

-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삭막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따스함이 남아있다고 느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전을 넣어 줄 때 너무 고마웠다. 돈 대신 먹을 것을 주신 시민도 있었는데 감동이었다. 이제부터는 거리모금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다. 돈도 돈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한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

1학년 15반 서희경

-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기뻐다. 오늘 하루 내가 봉사한 댓가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배부른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1학년 9반 김재영

- “처음에는 어색해서 머뭇머뭇 거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는데, 몇 분으로부터 돈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겨서 힘들지 않게 아주 열심히 하였다. 처음 해 보았지만 너무 좋은 기회였다.”

1학년 12반 정유경

- “계속 돌아다녔는데 우선 발이 아팠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치거나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무안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호소하는 것이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이라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2학년 5반 심관보

- “1학년 때는 2학년 선배들이 마이크 들고 말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신기하고 저런 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2학년이 되어 내가 직접 해보니까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아 좋았다.”

2학년 10반 이해림

미래의 주역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통해 굶주리고 못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 거리모금을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거리모금에 참여했던 구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JTS]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박 범 숙 대전 정토회 자원활동가

2008년 5월 5일 어린이 날.

JTS 세계 빈곤퇴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었다. 대전에서는 동부터미널, 한밭수목원, 그리고 서 대전 시민공원에서 불교대학생, 경전반,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열렸다.

준비과정에서 장소섭외가 가장 큰 문제였다. 처음으로 복지 팀이 꾸려지기는 했어도 회의는 잘 되지 않았고 장소를 잡고서도 불만들이 있어서 시작하기 전 날까지 장소문제로 시비가 엇갈렸다.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서 모금허락을 신청 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또 서울에서 준비물이 늦어지는 관계로 각 지역에서 물품을 나누기가 번잡했고, 팀장인 나조차도 활동부 게시판에 자주 놓치는 실수를 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이 잘 챙겨주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고마웠다.

서 대전 시민공원에는 갈마중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어머니 6명과 학생 6명이 참석하고 불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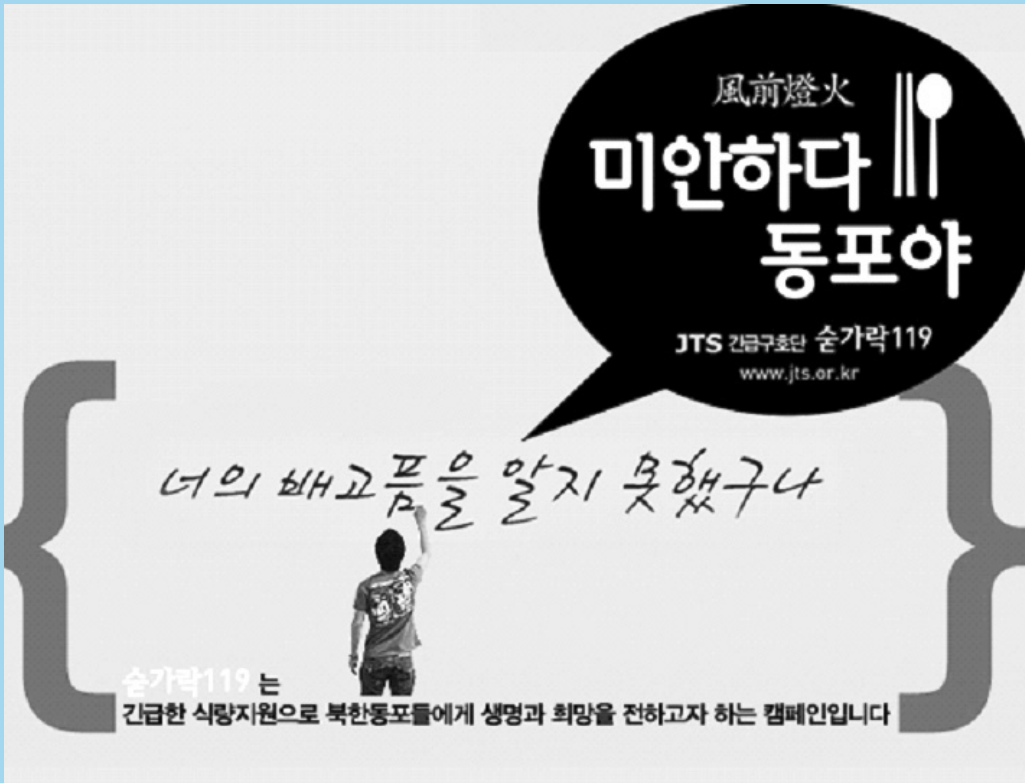
생 중에도 중학생이 4명이 포함되었다. 학생들과 처음 오신 어머니들의 교육과 관리 체계가 필요했는데, 총무님의 도움으로 사전에 교류가 있어서인지 잘 진행되었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나눔 장터의 옷에는 먼지가 쌓이고 불편함이 많았지만 누구나 불평하기 보다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자원 활동가이신 김호상님이 밤을 새워가며 꾸며 오신 인도 중심의 사진전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시각적인 효과가 참 좋았다. 그밖에도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에 도움을 주신 김난미님, 그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모금과 캠페인을 함께 해주신 갈마 중학교

어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했던 느낌이 들었다, 공문 보내는 일, 장소 섭외, 인원배치와 행사준비.....등등.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내 아이의 중심에서 벗어나 굶주리고, 소외된 아이들이 모두가 내 아이라는 구호처럼 밝고 맑은 마음을 내보려고 연습 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안으로 자신을 바꾸고 밖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한다. 항상 연구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고 향기로운 JTS 자원 봉사자가 되고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여본다. [JTS]



미안하다, 동포야,
너의 배고픔을 알지 못했구나,
이젠 미안하단 말 대신
네 손을 잡을게!

북녘동포를 살려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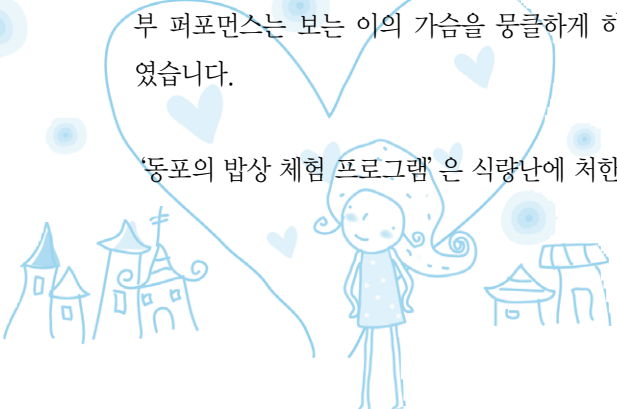
임 양 호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

‘북한의 6월 춘궁기’, ‘대량아사자 발생’이라는 기사가 방송에 나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JTS는 5월 26일 전국적으로 북한 식량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발대식을 가지고 30일(금)까지 일주일간 거리 모금 캠페인과 퍼포먼스, 동포의 밥상 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리 모금 캠페인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낭송과 발원문은 현장에서 모든 이의 마음을 소리 없는 눈물로 적시게 하였고 북한의 사진전과 사랑의 옥수수 불이기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 차례로 옥수수가 붙여지며 배고픔을 면해가는 장면을 나타냈습니다.

‘북녘에게 희망을’이란 제목으로 펼쳐졌던 1, 2부 퍼포먼스는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동포의 밥상 체험 프로그램’은 식량난에 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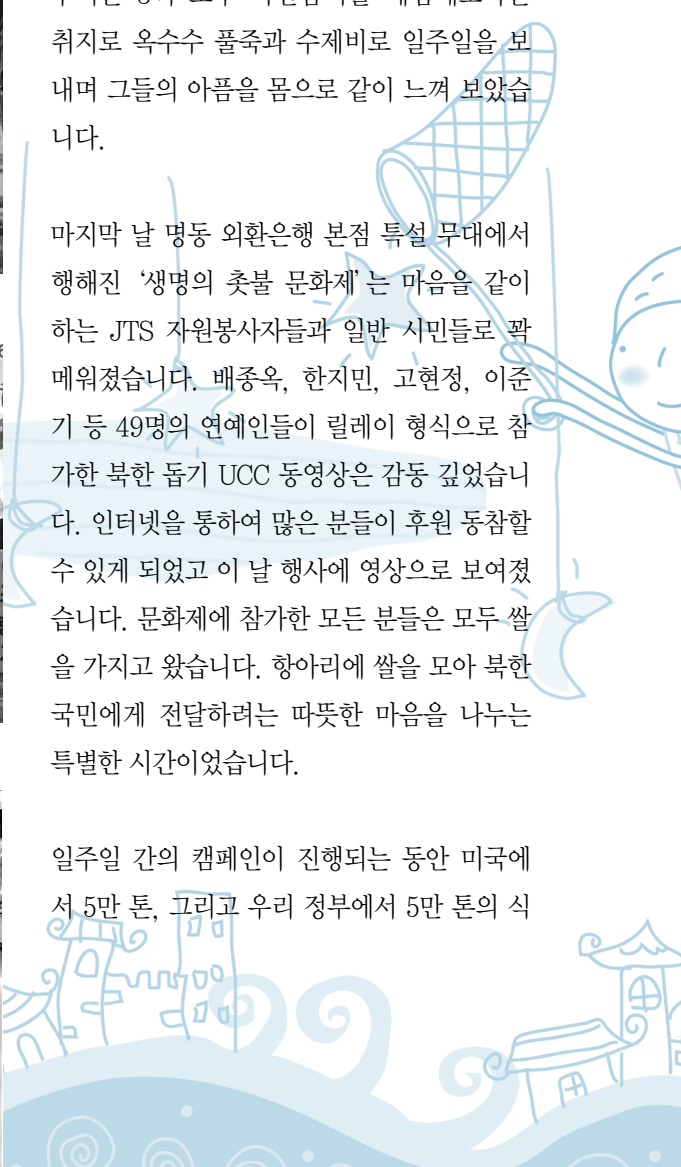


북한 서민들의 실제 식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같이 느껴보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저가 식재료로 선택된 풀죽(시금치나 아욱에 약간의 보리와 쌀을 넣어 끓인 멸건 죽)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북한음식 체험'이라는 안내말로 시식하게 하는 코너에는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어찌다 맛을 보는 이는 정말 이렇게 먹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안타까워하며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3끼 모두 북한음식을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옥수수 풀죽과 수제비로 일주일을 보내며 그들의 아픔을 몸으로 같이 느껴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명동 외환은행 본점 특설 무대에서 행해진 '생명의 촛불 문화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JTS 자원봉사자들과 일반 시민들로 꽉 메워졌습니다. 배종옥, 한지민, 고현정, 이준기 등 49명의 연예인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가한 북한 돕기 UCC 동영상은 감동 깊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후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날 행사에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문화제에 참가한 모든 분들은 모두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아리에 쌀을 모아 북한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간의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5만 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5만 톤의 식





량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이번 6, 7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인지... 하루하루 죽어가는 북한 주민 대량 아사를 어떻게 막아낼지 아직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로서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전달 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하루 속히 정부지원 긴급 식량 20 만톤이 북한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TS]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 '미안하다 동포야'의 릴레이 동영상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호동



고아라



고현정



김민중



김생민



김성은



김여진



김영호



김유현



김자옥



김정화



김제동



김종욱



데니안



마동석



박준규



박진희



박화요비



배종욱



백종민



변정민



서범식



소녀시대



손창민



송옥숙



슈퍼주니어



에픽하이



오대규



오현경



이상우



이선균



이연희



이영아



이영자



이종수



이준기



이준혁



이혜숙



장희웅



정경호



정일우



지상렬



지성



최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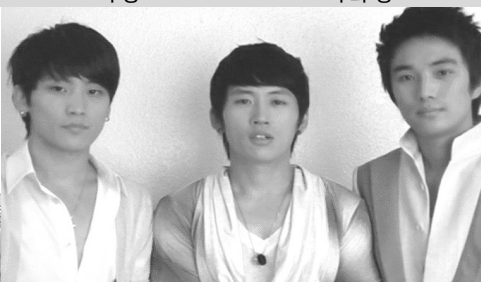
한고은



한상진



한지민



VOS



SG 워너비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동영상 제작을 수락하고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여 주신 모든 연예인 여러분들과 제작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별 활동소감문을 모아보았습니다.”

❖ 대전

소리 없이 죽어가는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을 하면서 대전역 주변에서의 느꼈던 사람들의 냉담함과 험한 말들은 우리들을 힘들게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캠페인이 수행의 연습장이 되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동포를 도우면서 간절한 마음은 내지 못했지만 남을 돕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임을 알았다.

❖ 청주

한 활동가는 북한 동포와 어린이를 도와달라고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으로 모금을 하셨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또한 이렇게 진심으로 모금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 대구

가장 가까운 북한이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는 어쩔 그리 멀까요? 캠페인을 나가서 멘트를 하고 모금을 하면서 간절함을 담아 도움을 요청하지만 너무도 싸늘한 사람들의 반응에 다시금 목이 멍니다. 북한 동포가 굶주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 부산

한 여자 어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스티커를 붙이고 갔다. 아이의 진지함 속에서 우리가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더 열심히 알려내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나의 몸짓, 나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울산

이번에는 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기 전에 살리자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울산대학, 성남동 등 이곳저곳에서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자 공연,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힘들다고 투정부리



지도 않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좋은 일한다며 격려해주는 아주머니들도 많았고, 동전을 넣어 미안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북한동포를 살릴 수 있는 희망들을 보았다.

✧ 마산

어떤 사람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돈을 털어 주기도 하고, 미용실 손님들에게 조금씩 받아 모아온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썰렁한 거리에서는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흰 저고리, 검정치마 입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시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어갑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를 안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배고프면 그냥 나누고, 아프면 안아주는 마음으로

✧ 김천

역 광장이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조금은 썰렁한 느낌이지만 활동가들의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연이은 수해와 외부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량 아시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껴안으려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 광주

한 끼만 굶어도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굶어죽는 동포들의 모습이 단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음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음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샌프란시스코

캠페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교포 시장 관계자님과 카이바 (KAYBA: 북가주 청년 불자 연합회) 회원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금을 내주신 교포 분들과 미국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드신 가운데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과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된다는 문구를 직접 체험한 것 같습니다. [JTS]





JTS 북한 식량 긴급 구호, 밀가루 200톤 선적식 가져

5월 27일, 부산항에서는 JTS가 지원한 밀가루 200톤을 실은 추성호(동용해운)가 북한의 라선항을 향해 출항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밀가루 200톤은 함경북도 애육원, 청진 육아원, 길주초등학교, 중등학교, 종성학원, 삼봉농아학교, 회령시 양로원 등 7개 지역과 2008년 새롭게 지원하는 라선시 어린이집과 양강도 해산시 어린이집 등 총 9개 지역으로 나뉘어 배분되게 된다.

이번 선적식에는 JTS의 '미안하다, 동포야' 캠페인 소식을 듣고 바자회를 열어 200만원의 수익금을 후원한 동국대학교 부속 유치원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면서 북한 친구들이 하루빨리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현재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비료 등 농업물자 부족과 2006년에 이어 2007



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곡창지대의 피해 등으로 2007년 식량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을 곡식이 떨어지는 봄부터 햇감자가 수확되는 7월까지 식량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JTS의 식량지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최초의 북한 식량 지원이다. JTS에서 이번에 지원한 밀가루 200톤은 5~6월 북한의 대량아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필요량인 20만 톤의 0.1%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양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타오르게 할 수 있고,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한번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이번 JTS의 지원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어 북녘동포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JTS는 한국과 중국을 통해 추가로 북한 긴급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JTS

공지민어린이가 북한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돼지저금통

박혜란 울산 우정초등학교 교사

유난히 시끌벅적한 아침이다.

‘어머! 애들이 왜 이러지?’

행여 다른 반에 피해가 갔을까봐 얼른 교실 문부터 닫고는 나름 무서운 얼굴로 아이들을 향해 묻는다.

“아침 독서 시간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지만 아이들 손순마다 들려진 초록색 돼지를 발견하고는 이내 미소가 지어진다.

많이들 신나고 부푼 모습이다.

“돼지 언제 가져와요?” “내일 가져와요?” 라고 연신 물어대던 아이들의 돼지를 드디어 수거하는 날이었다.

짹짹 돼지저금통을 흔들어 대는 우리 반 장난꾸러기 승우, 그에 질세라 더 큰 소리로 흔들어대는 모듬 친구들, 유난히 묵직한 자기의 돼지가 자랑스러워 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성원이, 오늘 아침에 돼지를 떨어뜨려 저금통이 깨져버렸다고 시무룩하게 나오는 정모...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대견스러워 웃었더니 순식간에 열댓 명이 주변에 모여들어 재잘댄다. 돼지저금통이 어떻게 해서 채워지게 되었는지 각자의 다양한 사연을 동시에 서너 명이 이야기하는 통에 또 정신없는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 돼지저금통 분양을 제안 받았을 때는 솔직히 2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 너무나도 풍족한 환경 속에 자라나는 요즘 아이들

이라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하여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급식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려도 교문을 벗어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단지 살아 남기 위해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어야하는 북한 아이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나 역시도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온 세대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짐작할 뿐인데...

하지만 틈나는 대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었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내 진심을 담아내되 아이들이 미처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무 가슴 졸이고 속상해하기 보다는 가볍게 한번 해보자 싶었다.

역시... 기우였다!

가볍게 했더니 다들 가볍게 받아들여 주었다. 구두결재로 받았지만 교장선생님도 가볍게 OK! 아이들도 서로 돼지를 가져가겠다고 손을 들었다. 그렇게 돼지를 분양하고 약 한달 동안 시간을 주었다.

“선생님! 천원이면 북한아이 한 사람이 일주일 먹는다고 했죠?”

알니 두 개가 빠져 웃으면 더욱 귀여운 우리 반 강호가 묻는다.

“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저는 이천 원 넘게 모았어요!”

“우와~ 그럼 강호가 한 친구를 2주일 넘게 살리겠네!”

“헤에~”

배시시 웃는 강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나는 항상 가르치는 것 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순수한 정성, 가벼운 나눔, 따스한 사랑... 오늘 역시 또 우리 반 꼬맹이들에게 배웠다!

나날이, 하나씩 더, 꾸준히 채워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____^ [JTS]





와이즈만 해누리가 펼치는 “인도 친구들에게 옷 선물하기” 캠페인

임 연 정 (주)창의와 탐구 사회 공헌팀

한국 JTS와의 인연은 200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생계비 1달러를 위해 구걸을 하고, 옷이 없어 얼어 죽는 불가촉천민이 거주하는 인도 동게스와리 사람들을 위해 와이즈만 해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인도 친구들에게 옷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주)창의와 탐구 임직원과 전국 와이즈만 영재교육 센터 학생, 학부모,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100박스가 넘는 옷을 인도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행이 지나거나 작아져서 입지 못하고 옷장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옷이 인도 친구들에게는 따가운 여름 햇볕과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선물이 되었다는 보람과 감사함으로 올해도 ‘인도 친구들에게 옷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예쁘게 접어 옷 선물 상자에 담는 학생들을 보며 선생님들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이즈만 영재교육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내어놓는 귀중한 나눔의 체험이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옷장을 정리하고 옷 선물을 준비하며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창의와 탐구 임직원과 전국 109개 와이즈만 영재교육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인도 친구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와이즈만 해누리는 가능하면 매해 ‘인도 친구들에게 옷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옷 선물보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 전 세계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와이즈만 해누리”는 (주)창의와 탐구와 전국 109개 와이즈만 영재교육 센터의 사회공헌기구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가난, 재해,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벽·오지 초등학교 및 저소득 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과학 체험전과 보육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학, 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결연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사업, 긴급지원 및 사회캠페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JTS]



현장소식

인도소식

● 수자타 아카데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인도의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5월 20일 프락보디 홀에서 수자타 아카데미 전교생과 유치원 상급 유치반 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랑의 쌀 모으기와

극빈자 봉사활동



5월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수자타처럼' 이란 주제로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 전교생, 모든 스텝들이 쌀 모으기를 하였다. 1학년은 쌀 1톨, 2학년은 쌀 2톨씩 모아서 16일간 900여명이 96kg를 모았다. 모인 쌀은 5월 17일 동게스와리의 16개 마을의 극빈자에게 6kg씩 전달되었다. 이날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은 직접 극빈자

인 독거노인 집에 방문하여 쌀을 전달해 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 등 쉬람단을 진행하였다.

중도 탈락생 캠프 (mainstreaming) 방문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 6명이 5월 28일부터 5월 31일 3박 4일 동안 캘커타 카라그푸르 지역에서 세바 켄드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도 탈락생 공교육 편입(mainstreaming) 캠프를 방문하였다. 이어서 5일 동안 실제 수업 운영 방식을 위한 교사 교육으로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 2인이 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동게스와리 지역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수자타 아카데미 교사들과 상급생들은 방학 기간 중에 불가촉 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8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방문 조사가 있었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반 구성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5, 6월동안 1, 2학년 중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힌디, 수학, 영어 오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 여름 방학

인도의 휴서기로 인하여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자타 아카데미와 유치원은 여름방학을 하였다.

● 지바카 병원

알벤다졸 및 종합비타민 지급



2008년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치원과 수자타 아카데미, 분교, 공사장, 결핵환자들 하여 총 1,940명에게 알벤다졸(3일간) 5,342정과 종합비타민(14일간) 30,475정을 지급했다.

콜까타 시스(SHIS) 견학



방학을 맞아해 2008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김원자, 김신아 활동가가 곳담, 비제이와 동행하여 "의료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참가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발전적인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콜까타 시스의 안과 병동과 결핵, MCH, 24시간 분만실, 긴급구조, 임상검사소, 허브농장, 식수사업 등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결핵부문의 RNTCP(개정된 인도국가결핵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았고 RNTCP 도입에 대한 질의사항을 가지고 돌아왔다.

● 마을개발

'로그북트 바짜' (질병 없는 아이) 프로젝트 진행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6일간 동게스와리 14개마을 15-35



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교육과 하계 구호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총 1,838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하계의류 3,676점과 원단 1,866M를 지급했다. 이제 동게스와리에서는 예방접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동게스와리의 아동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08 농부학교’ 진행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5일간 자그디스푸르와 두르가푸르 농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대 농사에 대한 이해와 토양에 맞는 씨앗, 거름, 약 등의 사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 건축파트

공사장 노동자들 북한주민돕기 후원금 891루피 전달



인도 JTS 건축부 소속 노동자 40여 명은 지난 6월 7일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지원에 써달라며 891루피(한화 22,275원)를 인도 JTS에 전달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화로 1,000원 정도이니 22일 일당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을 모금한 노동자들은 “우리들은 가난하지만 하루에 세끼 밥은 먹는데,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웃었다. 인도의 건축부 소속 노동자에게는 북한 동포는 남이 아닌 이웃이었다.

인도 JTS 건축부 간부 양성프로그램 진행

인도 JTS 건축부는 초급 현장 감독 양성을 목적으로 “건축학교”를 6월 16일 문을 열었다. 8명의 노동자가 이 수업을 듣고 있고, 이들은 향후 JTS 공사를 책임질 중추를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돈과 음식, 옷이 만들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숙박수련을 진행했다. 13명이 참가한 이번 숙박수련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 외에 새로 지은 학교 기숙사에 건물물을 지은 사람들이 직접 살면서 문제점을 점검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필리핀소식

땀파란 - 프로젝트 진행 합의서(MOA) 작성 및 학교 공사 시작

지난 5월 25일 마닐라 정토회 이원주 대표를 비롯한 마닐라 방문객들과 민다나오 제이티에스 자원활동가들



총 13명은 라나오 델 놀테 무나이 땀파란 지역에서 무나이 지방정부 관계자와 땀파란 마을대표들과 함께 제이티에스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합의서(MOA)를 작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이티에스는 100% 자재 지원, 지방정부는 기술자 지원, 트럭지원, food for work지원을 약속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자원봉사로 공사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미까실리 - 학교 완공을 지원하는 마을 의식 (RITUAL)



2008년 6월 8일 부키드는 키바웨 미까실리 마을 학교 공사 시작 관례 의식 (Ritual)에 참가하였다. 마을 대표들과 주민들 50여명, 지방정부 다물록 시장 및 일행 그리고 제이티에스 자원봉사자들 3명이 참가하여 학교 공사의 성공을 지원하는 마을 전통의식을 치루었다.

이날 참가한 시장은 이 지역이 키바웨에 주민들이 등록했지만 행정구역상 다물록임을 확인 시키고 이후 학교 공사시 food for work와 학교 완공 후 교사 파견을 약속했다.

현장소식

산마테오 - 마을 수도 파이프 연결 공사 검 선재 수련 맞이 준비



지난 6월 3일, 11일은 탈라각시 인돌랑 바랑가이 산마테오 마을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와 물탱크 배달이 있었다. 산마테오는 2007년 3월 준공식을 마친 3칸짜리 목재 건물의 학교로서 이번 8차 선재 수련 장소이기도 하다. 이 수도파이프 연결로 마을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식수 겸 목욕도 할 수 있어 매우 기뻐하였다.

캄보디아소식

캄보디아 답사



JTS는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지역에서 빈곤한 나라로 꼽히는 캄보디아를 답사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캄보디아를 둘러보면서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폴포트 정권하에서 200만 명이 죽어가는 시련을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아직은 모든 것들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교육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역량의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 또한 기술이 낙후하고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JTS가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더 많은 고민과 배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JTS는 이 지구상의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역으로 그 활동을 넓혀 가려고 한다.

국내소식

5월5일 세계 어린이빈곤퇴치 캠페인



5월 5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세계어린이 빈곤퇴치 모금캠페인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All my children)'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배종옥,한지민, 김여진, 한상진, 드라마 작가 노희경, 이선희, 성준기PD, 한석준 아나운서 등 방송인 30여 명이 명동 외환은행 앞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석했다.

미얀마 긴급구호

JTS는 미얀마 태풍피해 직후 대사관에 성금 천만원을 전달하고 5월 12일 1차 미얀마 피해지역 답사하였고,



5월 16일에는 미얀마 긴급구호 1차 보고회를 가졌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정부가 주최하는 '싸이클론 피해실태 및 국제구호물자 분배현황보고회' 행사에 참여하여 3차에 걸쳐 미얀마 현지에서 쌀 60톤과 양곤시 케카산템플에 4천불을 지원했다. 6월 19일 정토회관에서 미얀마의 우산띠마스님을 모시고 싸이클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를 가지고, 오백만원의 성금을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다.

북한 긴급지원 밀가루 200톤 부산항에서 출발



5월 27일 화요일 오후2시 부산항 제3부두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들을 위하여 밀가루 200톤을 지원하는 선적식이 있었다.

스리랑카 세와랑카 재단 관계자 JTS 방문



스리랑카 세와랑카 재단 관계자 네 분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JTS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께서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JTS와 세와랑카가 협력해서 스리랑카 농업개발자원을 해보자고 논의 되면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JTS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세와랑카 재단의 이번 방문은 주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기 위해서 경북 칠곡군을 중심으로 한국의 모내기, 육묘, 농업 기술장, 물 관리를 위해 농촌공사 등을 방문하였다. 세와랑카 재단 하르사 이사장님은 스리랑카 농업을 위해 경비를 적게 들이고 생산량은 늘리는 방법,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농법, 농업기술, 농기계 등을 보면서 JTS가 이후에 적극적으로 농업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미안하다 동포야 - 북한아사관련 긴급구호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에 '미안하다 동포야' 이름으로 북한 식량 지원을 위한 북한동포돕기 모금캠페인이 진행

되었다. 굶어 죽어가는 동포의 비극을 몰라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발원문을 낭독하고, 풀죽으로 연명하다 죽어가는 동포의 모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참상을 알리는 낭독문, 풀죽체험 밥상 시식하기, 모금과 홍보 순으로 이어졌다. 5월 31일 저녁 7시에 명동에서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한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뜻을 함께하는 연예인들과 함께한 문화공연을 통해서 동포의 참상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각자 가져온 쌀 한 줍씩 모으기로 나누는 자리였다. 인터넷으로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20 만 톤 긴급지원 이슈 청원을 함께 진행했다.

(주)창의와 탐구 와이즈만, 인도어린이에게 웃전달

(주)창의와 탐구 와이즈만 영재교육원의 사회공헌기구인 '와이즈만 해누리'는 '인도 친구들에게 웃을 선물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2.5트럭 1대분, 약 100박스의 아동복을 6월 10일 전달식을 통해 JTS에게 기증하였다.

대한불교청년회 성금 전달



5월 28일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이호광 사무총장님 등이 방문하여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5,575,790원을 JTS에 전달하였다. 이 성금은 지난 해 3월부터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모금활동과 일일차집 등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후원금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해 귀중히 쓰일 것이다.

화계사 성금 전달



6월 11일 화계사로부터 10,000,000원의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 성금은 올 봄 들어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을 전해 듣고 화계사내에서 모금한 것으로 밀가루 14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주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을 내주신 화계사 분들에게 감사하다.

아름다운 가게 성금 전달



아름다운 가게에서 재해와 기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해주었다.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덮친 미얀마 이재민들을 위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기부하였다. 또한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한 성금으로 20,000,000원을 6월 26일 전달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 매장에서 7-8월에 걸쳐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모금을 실시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가게와 가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신규회원(개인·단체)

2008년 4월 1일~5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강용운	P0029555	우정현	P0017932	김현영	P0029586
강은숙	P0023072	원성진	P0025818	김후태	P0007952
고광영	P0029205	유 성	P0029105	김희태	P0012889
고애란	P0020345	유영수	P0029184	노대섭	P0029207
고정희	P0007567	유종수	P0028868	노필선	P0007114
구정애	P0026163	윤주연	P0020149	류래호	P0029178
권영숙	P0008073	윤효철	P0028180	류준희	P0029553
김건우	P0029186	이경향	P0005062	문현성	P0028870
김경주	P0030048	이범수	P0026510	박석권	P0028989
김대성	P0028867	이소영	P0029894	박성희	P0021524
김도연	P0029562	이연화	P0029582	박운철	P0029220
김도현	P0029086	이은희	P0027658	박운정	P0017429
김명중	P0027235	이원근	P0009065	박윤희	P0030069
김민지	P0009966	이종노	P0022557	박정란	P0029425
김병수	P0029343	이인수	P0029763	박진만	P0029305
김병철	P0029462	이지순	P0021275	박호관	P0007662
김삼선	P0024032	이창자	P0028840	배정환	P0028893
김성규	P0029124	임재진	P0027321	성정숙	P0028754
김소현	P0022079	임종욱	P0027105	손윤영	P0012554
김영배	P0013974	장기석	P0028891	송부순	P0003741
김영자	P0029106	장재호	P0029329	송충업	P0028755
김영희	P0002822	장주호	P0015253	신수연	P0004919
김오기	P0029570	전남복	P0028558	양갑미	P0026235
김윤정	P0028987	전병학	P0004990	오경원	P0029096
김 율	P0029179	전정숙	P0022117	우정현	P0017932
김진경	P0026455	전혜숙	P0027430	유미영	P0015788
김종국	P0027488	정문희	P0023294	유 성	P0029105
김지웅	P0029581	정한정	P0005117	유지왕	P0029216
김지희	P0028531	조진근	P0015086	유일재	P0015456
김현우	P0028422	주일문	P0029470	이범수	P0026510
김영준	P0029568	최소영	P0029121	이병철	P0029806
김희성	P0029565	최 승	P0029831	이슬	P0028832
나복임	P0027815	최은영	P0019126	이연화	P0029582
남기정	P0028703	최준찬	P0029460	이영희	P0007339
노대곤	P0010137	최태희	P0028429	이태은	P0029475
노필선	P0007114	최형만	P0029174	이형수	P0011400
문서영	P0029119	최해정	P0029892	이현우	P0026640
민안자	P0002048	최소승	P0029487	이혜옥	P0006551
박미옥	P0015188	최 홍	P0004263	이효정	P0029551
박세희	P0029457	맹영주	P0016686	임재진	P0027321
박소연	P0021524	펜타이코 S0029412	한정애	장기석	P0028891
박옥숙	P0019187	홍창표	P0015517	장숙이	P0025871

북한어린이 결연

강영진	P0029587	정우정	P0026554
강용운	P0029555	장재리	P0005734
고광영	P0029205	전정숙	P0022117
구정애	P0026163	전채홍	P0029098
김구식	P0028360	정수경	P0028894
김근두	P0029454	강용운	P0029555
김규림	P0029087	정윤정	P0023294
김대성	P0028867	정준배	P0029897
김도연	P0029562	정진소	P0028865
김동훈	P0029321	정정숙	P0029554
김미애	P0013471	조규섭	P0029976
김영주	P0014570	조순주	P0029800
김은정	P0028830	주 철	P0029829
김정숙	P0014844	진인수	P0010560
김지연	P0011934	최 승	P0029831
김지희	P0028531	최원택	P0029552
		최은영	P0019126
		최은주	P0007946
		최정연	P0016509
		최향란	P0029174
		하상수	P0015783

하은희	P0029295
한현진	P0029886
황인자	P0022332
황정아	P0029577

북한 개발 후원

남광순	P0018113
유인경	P0015079
유석준	P0029333
윤우경	P0015789
윤일선	P0026043
윤정희	P0029742
윤태임	P0004290
윤 표	P0003885
윤준주	P0029889
이종은	P0029932
이정은	P0019125
이귀애	P0026699
이근형	P0015125
이기훈	P0029898
이덕기	P0010116
이민규	P0017420
이민우	P0028815
이봉기	P0030060
이병래	P0020316
이병래	P0017419
이삼노	P0028855
이성일	P0010201
이성화	P0012082
이서경	P0028797
이석정	P0012858
이선영	P0015192
이선영	P0029801
이소영	P0024088
이순애	P0014384
이영수	P0029286
이옥현	P0027607
이용도	P0029961
이유진	P0030071
이원희	P0020468
이은경	P0019010
이인수	P0029763
이재용	P0029995
이정만	P0008892
이정림	P0020403
이정순	P0021034
이종구	P0023362
이종현	P0030565
이종진	P0008269
이종호	P0015974
이종화	P0008920
아주영	P0016113
이종민	P0024213
이진희	P0015180
이재근	P0017563
이태조	P0026886
이태희	P0022113
이형주	P0006545
이희수	P0029330
임순기	P0029991
임춘옥	P0027105
임한태	P0028476
정기석	P0028891
정명희	P0010630
정성용	P0024262
정성호	P0004647
정은재	P0009251
정유원	P0030063
정정원	P0011733
정창호	P0004982

김형태	P0030004
김혜미	P0029996
김혜영	P0029732
김혜정	P0009910
김해진	P0026997
나성호	P0018068
남계희	P0001717
남산우	P0017260
남상호	P0012273
남성우	P0017259
남종우	P0029367
남정호	P0029957
류준하	P0029963
리병도	P0018066
문대윤	P0027998
민경은	P0029895
민화정	P0004645
박명용	P0028834
박민아	P0010686
박성용	P0028615
박세훈	P0026144
박용수	P0029988
박용수	P0029989
박은숙	P0024950
박정선	P0029992
박종부	P0028903
박종진	P0029849
박진희	P0029983
박창욱	P0029888
박형석	P0018316
박현진	P0023292
박혜경	P0023884
박희설	P0029858
배영자	P0002492
배정순	P0021576
배효순	P0023220
백승우	P0002268
사기철	P0029899
서수경	P0001741
서수일	P0016513
서예경	P0002516
서은선	P0005191
서재덕	P0028528
서호성	P0029949
손상호	P0023447
송영희	P0009937
송영희	P0017313
송정현	P0008834
신경아	P0006776
신동열	P0004911
신상룡	P0014428
신승애	P0030045
신성섭	P0029965
신향민	P0017018
심성혜	P0004613
심영진	P0029974
신욱민	P0014247
안선환	P0012200
안운주	P0028463
양창우	P0004178
양현애	P0006798
여지혜	P0029361
오명주	P0017850
오정건	P0029971

원광순	P0018113
유인경	P0015079
유석준	P0029333
윤우경	P0015789
윤일선	P0026043
윤정희	P0029742
윤태임	P0004290
윤 표	P0003885
윤준주	P0029889
이종은	P0029932
이정은	P0019125
이귀애	P0026699
이근형	P0015125
이기훈	P0029898
이덕기	P0010116
이민규	P0017420
이민우	P0028815
이봉기	P0030060
이병래	P0020316
이병래	P0017419
이삼노	P0028855
이성일	P0010201
이성화	P0012082
이서경	P0028797
이석정	P0012858
이선영	P0015192
이선영	P0029801
이소영	P0024088
이순애	P0014384
이영수	P0029286
이옥현	P0027607
이용도	P0029961
이유진	P0030071
이원희	P0020468
이은경	P0019010
이인수	P0029763
이재용	P0029995
이정만	P0008892
이정림	P0020403
이정순	P0021034
이종구	P0023362
이종현	P0030565
이종진	P0008269
이종호	P0015974
이종화	P0008920
아주영	P0016113
이종민	P0024213
이진희	P0015180
이재근	P0017563
이태조	P0026886
이태희	P0022113
이형주	P0006545
이희수	P0029330
임순기	P0029991
임춘옥	P0027105
임한태	P0028476
정기석	P0028891
정명희	P0010630
정성용	P0024262
정성호	P0004647
정은재	P0009251
정유원	P0030063
정정원	P0011733
정창호	P0004982

신규회원(개인·단체)

2008년 4월 1일~5월 31일

전광석 P0011215	조성숙 P0014006	최영희 P0024252	황연주 P0016541	유상민 P0012602	김지희 P0028531
전은산 P0019923	조은영 P0025518	최영희 P0026849	황인철 P0028361	이범수 P0026510	남기정 P0028703
전임수 P0009053	조인산 P0009387	최윤희 P0003955		이원희 P0009069	박영미 P0015411
전재화 P0018304	조한재 P0030059	최정임 P0023111		이정혜 P0015936	박운철 P0029220
정규환 P0030074	조항임 P0022748	최태자 P0002954	결 핵 퇴 치 후 원	정나영 P0026450	박정호 P0029206
정상열 P0018458	조홍재 P0024607	최형미 P0029968		조선경 P0005122	박철규 P0013945
정선숙 P0011143	주관식 P0014010	최영희 P0029956	최영희 P0029956		사수일 P0016513
정수진 P0004102	진선희 P0017110	하은이 P0012499	강영진 P0029587		성정숙 P0028754
정영식 P0005095	진성곤 P0007725	하재남 P0016478	김대성 P0028867	인 도 모 자 보 건	오상호 P0029455
정윤정 P0007958	최경화 P0023561	한수식 P0029964	김순덕 P0009688		이경희 P0027634
정윤희 P0023294	최기혁 P0029878	한임경 P0029850	김은정 P0028830	강영주 P0008532	이 슐 P0028832
정준섭 P0029868	최 란 P0001940	한정식 P0005916	김지웅 P0029581	김대성 P0028867	이홍철 P0029300
정한정 P0005117	최성재 P0022756	하남희 P0022527	김지희 P0028531	김민욱 P0001738	정덕희 P0028864
정훈석 P0015196	최수국 P0026295	하영진 P0022357	문금숙 P0014748	김세정 P0027910	정연순 P0028994
조미순 P0020753	최승복 P0029864	허종은 P0024739	박소연 P0021524	김영신 P0015163	정윤정 P0007958
조보경 P0026288	최연희 P0029970	현영자 P0016428	서부춘 P0020675	김은정 P0028830	정 윤 희 P0023294
조석현 P0029887	최영환 P0024243	홍영희 P0007735	서수일 P0016513	김종선 P0029218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광주

김용선 22,000 임형근 27,590

→ 대구

곽두삼 17,730 김대환 20,100 김미수 41,850 김민정 53,340 김수환 5,540 김태균 12,510 도원동대구유통2개 27,600 무명 18,680 무명 9,020 박운규(2개) 39,390 박주연 52,830 박태순 26,030 범물동홈마트 22,250 손영상 25,650 신준섭 11,320 심동훈 17,540 윤여영 17,230 이영주 19,170 이재민 30,860 정명화 17,026 조경숙 21,300 차상식 18,950 최규리 14,910 최별이 15,370 최용근 19,970 최인교 15,950 최창주 18,250 k플러스마트 21,910

→ 대전

김춘선 3,820 무명 26,580 무명 26,480 무명 27,910 무명 30,930 무명 23,120 무명 10,590 이수연 11,320 이주일 22,640 이춘락 3,100 정영미 28,500

→ 동래

강가령 30,650 강경희 61,750 강동원 3,150 강민우 1,170 강철원 29,650 강철원 78,100 강혜원 26,750 공정현 28,390 금정초(하은아) 13,700 금정초4-3 13,550 김광환 54,300 김구동 23,880 김난새 20,730 김아를 20,450 김지훈 24,130 도법문주 140,390 도영(금정초) 13,540 무명 10,320 무명 2,510 무명 17,960 무명 15,420 무명 10,780 무명 6,400 무명 24,280 무명 19,270 무명 5,340 무명 16,930 무명 41,320 무명 22,680 방항자2건 56,330 백현옥(동래교) 8,010 범문주 97,680 서백균 4,830 서호성 21,310 손애원 22,100 안혜원 22,830 윤명옥(통장) 20,000 이미순 28,010 이민주 3,880 이민주 12,000 이상현 29,550 이정애 27,120 정미자 20,850 정윤희 7,640 천정숙 1,160 최병일 32,160 최정숙2건 66,210 최정희 12,510 최해란 12,720 홍승태 5,280 kbs미디어 14,770

→ 마산

김윤규 18,180 광중 13,600 구민희 8,700 권재영 20,780 귀귀숙(신세계치과) 14,660 김삼선 21,510 김정희 31,800 김지훈 8,280 김춘부 15,400 남윤경 16,370 노태곤 50,800 룬말수 5,490 묘락형 13,000 묘락형 9,080 묘락형 29,600 무명 36,400 무명 24,890 무명 123,500 무명 94,600 문진영 15,850 배정애(순자 양수용) 13,990 북한기아들기캠프 밤 118,370 분정3차 최정호 2,800 서동찬 19,380 시장수퍼 24,260 신대권 25,040 신세권(창원병원) 45,600 안중제 13,520 원협33번 11,010 원협33번 6,560 원협6번 6,530 원협6번 3,000 유혜경 49,930 이상심 3,220 이우희 18,900 이지윤 24,400 이태은 20,240 전문표 35,830 정순이 38,100 정현재,연지 7,440 종출 13,500 주정희 15,390 진동 9,250 진명생 11,600 최재두 16,390 하민진 20,700 한마음선원(8개) 161,690 한인호 10,360 할안케이스사관 24,600 할안 케이스사관 5,500 합포내과 28,020 합포내과의원 38,830 호아김숙자 8,100 홍경희 1,510 홍경희 37,870

→ 서울

5897부대 172,300 고경녀 22,650 광정래 14,790 권진택 13,390 금융사 133,000 김명훈,권오영 32,270 김민욱 31,000 김성규 30,760 김영배 63,480 김용식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250 김일식화 20,630 김정숙 4,720 김정숙 20,290 김주철 36,200 김주철 40,530 김향 29,040 김혜경25,160 남궁영임 31,470 다인혜아 27,400 **당산중학교 186명 877,050** (1-1반 강유미4,210 김다혜와6인 16,000 김준정 3,540 김지웅 2,090 무명 1,780 무명 2,750 무명 3,440 박소연 4,300 박소영 7,760 박은혜 2,640 박필립 1,050 배성준 8,310 오동길 3,380 이석진 1,150 이영태 8,300 이혜선 5,040 임유리 3,500 임지연 2,100 장지원 6,410 정일종 9,780 정재현 1,600 최윤섭 4,150 하새란 4,980 황유하 11,300 황인후(1,740) (1-2반 강혜정 3,640 국윤지 1,550 김현준 2,570 무명 5,730 무명 8,720 무명4,970 박차연 4,000 신연경 6,060 안시현 8,710 우성문 11,040 이남규 5,850 이자영9,570 이정형 1,210 장수경 10,440 정승연 3,730 정연 18,750 조성일 13,690 허지원8,590 홍하성 8,500) (1-3반 김민 5,600 김성원 5,780 김소현 8,610 김태원 8,310 무명3,990 박동준 4,970 박유진 1,920 안서현 670 우현승 3,550 유가윤 1,420 유예은 730 유익원 450 이경주 1,270 이상재 2,980 이명성 7,890 이예진 240 이자수 7,670 이진화1,740 이혁기 1,580 임정현 290 장민철 2,000 정지환 5,000 조예린 1,280 최영준 9,150 최유진 1,460) (1-4반 강민우 1,370 고승민 7,660 구다윤 500 김민아 1,780 김송안 15,230 김지현 18,540 김지현 630 문선영 4,150 박상록 1,480 박주원 640 안현 9,540 이세리 550 이수빈 2,910 이승민 5,860 이윤지 1,200 이주영 3,050 이지훈 5,070 차현미 1,880 최혜연 1,190) (1-5반 강지수 4,570 김나영 5,230 김동균 11,570 김민지 6,710김슬 3,360 김윤경 1,710 김재옥 1,800 김종석 6,400 무명 2,520 무명 1,200 민경진2,270 박정호 4,420 박재울 3,470 배경호 5,010 서동석 2,980 석은빈 2,750 손문 720 송채원 1,130 양혜은 2,480 이다수 2,800 이동형 2,050 이어진 770 이예슬 7,390 이은지4,300 이현성 2,440 이항규 7,650 조승현 4,700 최유진 680 황예은 1,730) (1-6반 권소연 4,490 권혜윤 1,680 김민규 3,710 김예진 7,460 김윤혁 4,800 김지윤 5,000 노원종2,450 무명 1,530 무명 2,280 무명 3,500 무명 3,570 박세은 5,300 박소영 4,620 박종환2,610 백성일 3,300 변상훈 1,620 선혜지 2,500 신경철 15,270 신승현 3,510 오영은3,800 이건우 4,790 이승영 6,890 이원경,김민지 8,200 이원구 3,820 이윤아 2,600 임수빈 17,380 장선희 4,550 전영주 4,080 조규민 13,870 최은정 5,970 한하은 2,050 허민석(10,230) (1-7반 김봉민 970 김성관 2,990 김소진 1,810 김아원 1,550 김예린 250 무명9,550 무명 700 민정기 6,700 신동재 1,060 신지영 3,440 양귀환 3,510 양혜인 2,260 오유진 2,280 위용복 1,000 윤인열 880 이은영 2,100 이은채 1,620 이주는 750 이혜진1,330 임경내 1,330 임상우 1,190 임슬 4,910 임영수 14,610 임해린 490 조윤위 2,960 조정목 1,050 주성민 5,150 한승연 5,600) (1-8반 김예린 10,630 김정민 26,430 김지영7,750 김현경 2,610 무명 1,940 박보라 4,510 여나경 12,810 윤태두 8,180 조윤영 7,520)도봉구민원봉사과 45,900 동원민물장어 14,520 무명 62,900 무명 34,390 무명22,470 무명 32,620 무명 14,870 무명 21,230 무명 19,010 무명 27,340 무명 67,250 무명 11,090 무명 19,090 무명 13,330 무명 19,070 무명 8,020 무명 15,450 무명 16,240 무명 42,180 문구매장 43,690 문정숙 17,970 민영철,장해윤 34,880 민영철,장해윤 34,000 박기일 32,530 박현민 12,090 박희정 15,100 박희정 7,780 박희정 31,850 배상돈 18,690 북한돌기 17,800 사복 23,260 서정 9,850 소이아동복 36,570 송영희 24,600 신도사무실 7,600 신한은행서면지점 9,940 연수고2-7반 37,560 온세리문단비 83,420 운주사 65,650 울산축협남구지점 52,440 육해경 28,850 윤낙영 66,500 윤복남 25,070 이경수 23,770 이경호 8,680 이덕기 29,770 이서경 24,840 이서경 34,360 이옥영 8,040 이옥양 6,470 이인규 29,700 이인준 28,460 이창주 40,170 이희규 30,750 임성희 21,740 장설 126,920 장성호 33,440 장준태 27,540 정돈영 7,100 정돈영 19,960 정돈영 6,050 정돈영 12,860 정자수 20,450 정지훈 18,510 제일의원 23,960 주선자 75,780 최수경 37,130 최선영 17,970 최원정 39,960 최용호 20,960 최원구 6,370 최이섭 16,650 최이섭 18,430 최이숙 33,660 최현규 15,100 최희선 20,830 한승희 2,100 허영경 8,980 홍상은 24,750 황경심 27,800 황지원 20,500 회덕동협한촌지점 10,680 MERCK 15,940

▶ 울산

교현사 20,610 교현사 19,150 김경택 34,830 김경택 30,340 김대기 15,310 김연주 22,720 김춘삼 29,650 무명 40,930 무명 1,020 무명 6,470 서울떡집 20,430 신한약국 18,620 여승은 25,160 옥동골프연습장 4,560 **옥천초등학교5-1반 20명 79,190** (강석우 3,240 김광훈 12,250 김소희 5,980 김준모 1,250 서승한 940 손동욱 2,160 신영민 7,080 오다수 8,150 오승은 830 윤재웅 2,650 이나경 3,760 이상성 1,440 이선희 4,540 이연화 4,050 임재삼 3,370 장미 2,440 최영민 2,460 최은영 7,100 최하윤 820 추송이 4,680) 이팔애(정민관) 54,520 자연드림옥동점 14,940 장숙희 34,510 필지과 870 sc제일은행울산남구지점 36,220

▶ 제천

강다영 20,810 강소영 16,260 강주영 21,250 박경애 39,300 박수영 16,150 홍진희 12,520

▶ 청주

김명중 43,700 김민석 14,480 김지혜 22,570 나복임 28,080 민안자 38,600 이선규 21,410 이원근 8,880 이항운 46,560 이효준 30,090 정남식 40,010

▶ 해운대

고주현 9,820 권경자 12,581 김결 36,030 김정현 26,030 김효미 25,200 마산아구점 25,320 무명 2,420 무명 3,400 무명 21,740 무명 29,090 무명 46,200 무명 19,450 무명 30,550 무명 25,860 무명 16,800 무명 7,040 무명 25,460 박영진 37,690 박철암 49,360 배정숙 18,580 보현행원요양원 38,290 손명환 20,750 이경훈 35,130 이문희 6,960 이수진 2,380 전영복 34,450 정재남 31,360 좌4동사무소 16,640 추병우 12,630 추병우,추혜정 9,660 파리버게트 8,730 하가원식당 13,920

*거리모금 현황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주 506,540 김천 396,140 대구 6,979,240 대전 418,610 동래 2,390,620 마산 5,457,219 문경수련원 1,089,520
서울 14,654,428 울산 4,611,679 정읍 155,610 제천 1,311,280 진주 324,960 청주 820,250 통영 666,800 함양 166,810
해운대 1,263,140 북경 112,000

특별후원금

2008년 4월 1일~5월 31일

서부춘 150,000원	강영진 50,000원	복한긴급구조	김순수 200,000원	남성우 30,000원	손재희 50,000원
조선경 1,000,000원	곽봉준 250,000원		김소연 200,000원	남홍우 50,000원	손재희 300,000원
권미순 100,000원	김만경 2,000,000원	강경희 390,000원	김소호 300,000원	노미숙 50,000원	송민석 100,000원
백정자 80,000원	김영주 100,000원	강두석 100,000원	김승희 10,000원	노지오 10,000원	송영숙 40,000원
손양근 400,000원	김정숙 300,000원	김미경 74,900원	김애식 30,000원	노혜원 10,000원	송영희, 양영우 10,000,000원
연규명 30,000원	김지연 50,000원	강복웅 1,000,000원	김애자 100,000원	오미라 30,000원	송정현 50,000원
우종현 100,000원	김형기 400,000원	강순미 100,000원	김양기 150,000원	노혜숙 50,000원	신경아 100,000원
윤태순 60,000원	김희태 100,000원	강시찬 30,000원	김양기 500,000원	다음커뮤니케이션 205,000원	신동열 100,000원
이근만 5,000,000원	배정환 112,000원	강산익 100,000원	김영섭 4,500,000원	류근희 1,000,000원	신동열 50,000원
이정순 20,000원	여용열 100,000원	강영화 500,000원	김영숙 500,000원	류인철 200,000원	신동열 100,000원
김동훈 200,000원	은일재 100,000원	강옥선 10,000,000원	자비원봉사 1,000,000원	류준하 200,000원	신명순 100,000원
손윤호 100,000원	이향순 30,000원	강윤규 30,000원	김영신 70,000원	류준하 20,000원	신상룡 1,000,000원
양윤순 1,000,000원	이향원 150,000원	강은희 100,000원	김영운 150,000원	문영산 10,000원	신상룡 1,000,000원
김세정 100,000원	군법정 법제사 14,050원	강화분 100,000원	김영임 430,000원	마해옥 1,000,000원	신상룡 1,000,000원
김영진 50,000원	진인수 100,000원	고낙원 10,000원	김영주 30,000원	민경은 100,000원	신세권 40,000원
서수일 62,000원	최상철 200,000원	고정희 300,000원	김예정 50,000원	민화정 100,000원	신승애 10,000원
(주) 동승엔지니어링 150,000원	최은주 50,000원	곽영술 100,000원	김옥희 30,000원	박기범 1,000,000원	신영애 110,000원
고애만 인도우물파기후원 1,000,000원	박보남 100,000원	곽윤기 50,000원	김우기 1,000,000원	박기범 1,000,000원	이미경, 이준호 53,950원
권영숙 91,000원	손이나 50,000원	구미경 10,000원	김유선 30,000원	박남규 1,000,000원	신동열 100,000원
김미현 90,000원	구원희 30,000원	구상은 30,000원	김윤희 300,000원	박명용 50,000원	신준섭 100,000원
김수길 열가1,000,000원	김동주 200,000원	구언련 70,000원	김은정 20,000원	박민아 10,000원	신창민 30,000원
김병수 100,000원	김도현 50,000원	구정욱 50,000원	김인숙 50,000원	박병윤 100,000원	신호철 100,000원
김상현 50,000원	김동훈, 최신영 500,000원	권순범 200,000원	김남순 1,000,000원	박병준 100,000원	신호철 10,000원
김상현 100,000원	김정은 탄생기념 50,000원	권영숙 1,000,000원	김정민 10,000원	박성훈 200,000원	심상해 1,000,000원
김성규 취업감사 기념 500,000원	박만하 500,000원	권정숙 50,000원	김정숙 100,000원	박세훈 50,000원	심영만 30,000원
김영희 100,000원	김아진 5,000,000원	권기문 200,000원	김정숙 2,000,000원	박소연 110,000원	심옥진 100,000원
김종국 100,000원	김영배 1,000,000원	권혁중 10,000원	김정숙 100,000원	박소연 50,000원	심호철 1,000,000원
김진희 150,000원	김영자 22,000원	김범진 100,000원	김종덕 100,000원	박소덕 10,000원	안병주 3,000,000원
최환석 최민희 인도 핸드 200,000원	김정민 100,000원	김정국 50,000원	김종복 500,000원	박영기 20,000원	안성환 50,000원
필프 지원 200,000원	김정철 10,000원	김경철 50,000원	김종철 60,000원	박영기 10,000원	양윤순 30,000,000원
김혜정 30,000원	김태정 100,000원	류병일 20,000원	김주철 100,000원	박영매 100,000원	양창우 100,000원
문서영 100,000원	최환석 인도핸드프지원 200,000원	김경택 1,000,000원	김주철 1,000,000원	박영민 300,000원	양현애 100,000원
박계자 1,000,000원	김현우 1,000,000원	김규숙 1,500,000원	김지성 1,000,000원	박용수 100,000원	여지혜 20,000원
박진기 돌기념 후원 200,000원	김혜진 100,000원	김규돈 30,000원	김지현 1,000,000원	박용수 100,000원	여현우 100,000원
박성자 박성민 박성현 15,000원	박영희 20,000원	김균병 50,000원	김진선 10,000원	박용훈 1,000,000원	오디영 300,000원
신승남 5,000원	박지현 20,000원	김기보 1,000,000원	김진우 100,000원	박은숙 100,000원	오명주 50,000원
오금실 100,000원	박지현 20,000원	김가식, 김진희 10,000,000원	김준자 100,000원	박정선 30,000원	오민우 100,000원
이경향 4,000원	박지현 20,000원	김기영 1,080,000원	김태권 120,000원	박종부 50,000원	오숙정 100,000원
이규정 25,000원	신승희 66,000원	김기영 1,000,000원	김태희 70,000원	박종진 5,000원	오정근 10,000원
이은희 10,000,000원	신정자 30,000원	김기현 50,000원	김하정 10,000원	박지선 20,000원	우영욱 21,910원
민경근 40,000원	신찬국 200,000원	김낙춘 100,000원	김한욱 100,000원	박진희 120,000원	원광순 50,000원
이영수 35,000원	안말숙 1,000,000원	김남수 300,000원	김행만 50,000원	박창욱 50,000원	원치환 5,000,000원
이재하 100,000원	웅진생크빅 149,000원	김대하 10,000원	김향 50,000원	박태화 1,000,000원	유명규 100,000원
이지순 2,000,000원	이광성 100,000원	김순영, 김우열 300,000원	김혁 300,000원	박현희 10,000원	유인경 50,000원
정나영 20,000원	이근만 100,000원	김동원 20,000원	김현남 10,000원	박현진 200,000원	유재연 200,000원
조대제 10,000원	이능수 30,000원	김명용 50,000원	김현아 22,000원	박혜경 80,000원	윤명숙 50,000원
조연현 570,150원	이인수 340,000원	김문희 100,000원	김현조 20,000원	박혜란 100,000원	윤석준 30,000원
최해국 100,000원	임남환 150,000원	김미숙 1,000,000원	김형수 1,000,000원	배명자 10,000원	윤여영 500,000원
최이섭 1,200,000원	임준옥 500,000원	김미영 20,000원	김형수 9,000,000원	배상훈 100,000원	윤옥순 2,400,000원
최홍 10,000원	장숙희 500,000원	김미현 50,000원	김형준치과 100,000원	배상훈 150,000원	윤우경 30,000원
황재윤 공무원 시험 합격 100,000원	장주호 150,000원	김민성 10,000원	김형태 200,000원	배정순 5,000,000원	윤일선 20,000원
이병래 500,000원	전남북 100,000원	김민욱 50,000원	김해민 5,000원	배종순 50,000원	윤지희 200,000원
(주) 동승엔지니어링 150,000원	전병학 100,000원	김민정 200,000원	김해민 100,000원	백경임 1,000,000원	윤지문 30,000원
강영진 100,000원	조강래아기 백일 기념 50,000원	김민정 500,000원	김해영 100,000원	백송우 1,000,000원	윤재희 300,000원
김규리 150,000원	조주영 200,000원	김병주 200,000원	송영희 30,000원	사공창현 1,000,000원	윤태순 70,000원
김순덕 30,000원	최세열 30,000원	김봉주 100,000원	김해진 200,000원	서기철 6,000,000원	윤태임 1,000,000원
김은정 100,000원	팬타이코로 2,439,810원	김상현 50,000원	김해진 100,000원	서동찬 50,000원	윤표 100,000원
김진희 150,000원	하은이 40,000원	김성길 30,000원	김효상 1,000,000원	서동찬 1,000,000원	윤해숙 100,000원
문금숙 150,000원	한계분 40,000원	김선숙 30,000원	김홍길 200,000원	서수경 10,000원	윤준주 100,000원
유상민 150,000원	한계분 40,000원	김선범 500,000원	김환기 1,000,000원	서수일 20,000원	이경은 50,000원
정나영 30,000원	홍창표생일축원 30,000원	김성남 50,000원	김효숙 300,000원	서예경 500,000원	이경학 100,000원
	황선국 640,000원	김성호 100,000원	김희라 1,000,000원	서은선 1,000,000원	이귀태 100,000원
		김성훈 1,000,000원	나상호 20,000원	서재덕 50,000원	이근행 50,000원
		김세정 100,000원	남계희 500,000원	서원진 50,000원	이근희 100,000원
		김순미 30,000원	남산우 100,000원	손성호 50,000원	이기훈 500,000원
		김순란 1,000,000원	남성호 30,000원	손석호 2,000,000원	이나미 300,000원

특별후원금

2008년 4월 1일~5월 31일

이덕기 50,000원	이종원 100,000원	장유정 200,000원	최순희 10,000원	박윤희 50,000원	송정현 50,000원
김영순 20,000원	이종진 100,000원	장상열 1,000,000원	최연희 10,000원	배건영 1,000,000원	안상화 50,000원
김영순 1,000,000원	이종호 4,000,000원	정선숙 100,000원	최영환 30,000원	장우정 10,000원	어자혜 20,000원
이동근 68,042원	이종화 100,000원	정선화 100,000원	최영희 30,000원	정수경 20,000원	오민우 100,000원
이명선 1,000,000원	이주영 15,000원	정수영 50,000원	최영희 300,000원	조규섭 50,000원	우정인 30,000원
이묘임 500,000원	이주현 10,000원	성지는 생일축원 50,000원	최용근 30,000원	주철 60,000원	원지황 1,000,000원
이민규 10,000원	이종민 200,000원	장영식 50,000원	최윤숙 1,000,000원	최승 50,000원	유근주 1,000,000원
이민우 10,000원	이진희 50,000원	정우현 300,000원	최은희 100,000원		유미영 100,000원
이병기 10,000원	이재근 500,000원	정은희 20,000원	최은봉 100,000원	해 외 김 구 호 (미 안 마, 중 국)	
이병래 300,000원	이태희 2,000,000원	정일애 2,000,000원	최장희 400,000원		
이병래 1,000,000원	이형주 1,110,000원	정일애 100,000원	최장임 100,000원		
이병래 1,000,000원	이희복 30,000원	정준섭 100,000원	최정희 10,000원		
이병석 355,000원	이희숙 200,000원	장정숙 100,000원	최태자 10,000원	강복웅 100,000원	이병래 300,000원
이상노 30,000원	임순기 26,000원	정훈식 30,000원	최광식 45,000원	곽봉준 250,000원	이선영 1,000,000원
이상임 50,000원	임준우 200,000원	조대재 20,000원	최광식 30,000원	이성록 20,000원	이성록 20,000원
이상학 100,000원	임한태 100,000원	조미경 1,000,000원	최형미 100,000원	권영숙 200,000원	이연서 1,000,000원
이상화 100,000원	안정자 120,000원	조미순 100,000원	최희선 500,000원	김미현 50,000원	이진희 50,000원
이서경 30,000원	장경선 1,000,000원	조민웅 4,000,000원	티엔브이어드바이저 2,000,000원	김민욱 50,000원	이효정 100,000원
이석도 150,000원	장금자 100,000원	조민웅 6,000,000원		김민욱 50,000원	이효진 20,000원
이석정 1,000,000원	장기석 30,000원	조보경 120,000원	하병기 200,000원	김성현 150,000원	임영광 300,000원
이선영 100,000원	장남식 100,000원	조성숙 500,000원	하은이 40,000원	박만하, 한귀분 500,000원	임해수 300,000원
이선영 1,000,000원	장명희 30,000원	조육분 100,000원	하은이 100,000원	김승희 10,000원	장부영 3,000,000원
이성걸 500,000원	장부영 1,000,000원	조은영 50,000원	하재남 100,000원	김유진 100,000원	장진우 500,000원
이성임 100,000원	장부영 1,000,000원	조인록 1,000,000원	하재남 20,000원	김재웅 150,000원	장진우 500,000원
이소영 500,000원	장상용 100,000원	조인숙 100,000원	한규매 150,000원	김재웅 150,000원	장창호 50,000원
이순애 45,200원	장성호 10,000원	조인순 30,000원	한수식 100,000원	김정화 100,000원	전미정 100,000원
이순애 50,000원	장세은 1,000,000원	조한제 10,000원	한승협 1,000,000원	김주철 100,000원	정수영 100,000원
이양욱 500,000원	장숙희 5,000,000원	조한제 90,000원	한임경 100,000원	김창현 100,000원	정순임 100,000원
이영수 30,000원	장유원 50,000원	조항임 1,285,440원	한정식 100,000원	김희준 100,000원	조은희 5,000원
이육현 150,000원	장정원 50,000원	조흥세 30,000원	하남희 300,000원	노광철 100,000원	청화스님 800,000원
이용도 40,000원	장진우 1,000,000원	주관식 1,000,000원	허명진 5,000,000원	노혜숙 50,000원	최성재 1,000,000원
이우희 700,000원	장창호 100,000원	진성근 이금봉 200,000원	허종은 50,000원	노혜경 1,000,000원	최영환 30,000원
이경녀 70,000원	장창호 400,000원	최경련 1,000,000원	현영실 100,000원	마복주 10,000원	최완옥 1,000,000원
이윤희 100,000원	장한수 200,000원	최경순 10,000원	현영자 30,000원	박미성 10,000원	최정희 50,000원
이은경 200,000원	장한수 30,000원	최경화 200,000원	홍경희 500,000원	박민아 50,000원	최홍선 50,000원
이인수 360,000원	장혜진 1,000,000원	최기혁 50,000원	홍영희 10,000원	박연희 60,000원	하은이 20,000원
이임숙 100,000원	장광석 50,000원	최란 100,000원	황선옥 40,000원	박영미 70,000원	한금세 50,000원
이재용 100,000원	전문표 1,000,000원	최문숙 50,000원	장덕연 100,000원	박윤덕 50,000원	황순애 30,000원
이점숙 200,000원	전미향 100,000원	최병무 1,000,000원	황연주 800,000원	박은주 100,000원	
이정란 10,000원	전병찬 3,000,000원	최병연 20,000원	황인철 20,000원	배기덕 1,000,000원	
이정림 500,000원	전은산 20,000원	최병연 100,000원	황화숙 200,000원	백승우 100,000원	
이점숙 200,000원	전인숙 50,000원	최성재 3,000,000원	무기명 10,000,000원	사공창한 1,000,000원	
이종구 20,000원	전재화 300,000원	최수국 20,000원	박윤정 50,000원	송영혜 50,000원	

물품 후원 내역

- 춘천 봉덕사 해육스님 성인 상의 27장, 어린이 상의 19장 어린이 하의 15장외
- 무명 블라우스 26장, 남자 상의 21장, 반바지 2장, 여자니트 상의 8장, 여하의 6장
- 단체로 오행순님 보조가방 46개, 노란티 70장, 가방 35개, 가방 11개
- 유옥수 손톱가끼 5세트, 샤프 59개, 샤프심 329개, 자 97개
- 정미선 여성 상의 10장, 여성 브라우스 33장, 아동겨울바지 3장

- 우영미 손으로 짠 목도리 47장
- 허종은 남자 겨울점퍼 5장, 남자양복바지 6장, 여자코드 1벌, 남자와이셔츠 21장외
- 장소영 아크릴판(복자부안내판)
- 다다 노트 213박스 (박스당 노트 30권)
- 와이즈만 아동 옷 2.5톤 1트럭

2008년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미처리자

2008년 4월 1일~5월 31일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080528 21006631	농협중앙회	080528 김명철	국 민 은 행	080528 김주연	국 민 은 행	0805 미안마	국 민 은 행	080529 북한통표들기	국 민 은 행
080410 (사)한국제이신한은행	080529 김명희	국 민 은 행	080529 김주영	국 민 은 행	080519 대한항공	국 민 은 행	080529 북한아이모금	국 민 은 행	080528 북한이성생국민은행
080523 (주)엑스필드국민은행	080418 김미경	국 민 은 행	080526 김지선	국 민 은 행	080527 박경미	국 민 은 행	080528 북한주민회	국 민 은 행	080523 북한주민회국민은행
080403 (주)이존투어국민은행	080524 김미성	국 민 은 행	080529 김지영	국 민 은 행	080522 박경숙	국 민 은 행	080528 불암사	국 민 은 행	080528 불암사국민은행
080530 (주)인포라브국민은행	080526 김미영	국 민 은 행	080522 김지희	국 민 은 행	080528 박경식	국 민 은 행	080414 사.ITS인도	국 민 은 행	080528 사연옥
080519 (주)엘렉트릭국민은행	080403 김미정	국 민 은 행	080526 김창호	국 민 은 행	080527 박경아	국 민 은 행	080530 사천소림사	국 민 은 행	080530 삼강통상주
080410 5897부대국민은행	080526 김미지	국 민 은 행	080530 김춘태	국 민 은 행	080531 박경화	국 민 은 행	080512 세민우정빌	신 한 은 행	080512 색채시공
080527 감사합니다국민은행	080530 김미현	국 민 은 행	080529 김태구	농협중앙회	080528 박기흥	국 민 은 행	080523 서동락	국 민 은 행	080527 서동환
080529 김덕순	국 민 은 행	080527 김미경	국 민 은 행	080429 김태민	신 한 은 행	0805 박낙범	우 체 국	080527 서형룡	국 민 은 행
080407 김미경	제 일 은 행	080523 김미현	국 민 은 행	080426 김태순	외 환 은 행	080523 박미성	국 민 은 행	080529 서혜정	국 민 은 행
080521 김법선	국 민 은 행	080530 김민정	국 민 은 행	080515 김태윤	국 민 은 행	080521 박미숙	국 민 은 행	080527 신배	국 민 은 행
080502 강성욱	하 나 은 행	080528 김민진	국 민 은 행	080527 김태일	국 민 은 행	080528 박영수	국 민 은 행	080509 설장숙	국 민 은 행
080425 강세욱	신 한 은 행	080531 김민혁	국 민 은 행	080529 김태민	농협중앙회	080530 박영순	국 민 은 행	080529 성금	국 민 은 행
080522 강순남	국 민 은 행	080530 김민호	국 민 은 행	080528 김향숙	국 민 은 행	080527 박이거람	국 민 은 행	080404 성불하세요	국 민 은 행
080528 강영순	국 민 은 행	080530 김병호	제 일 은 행	080529 김향주	국 민 은 행	080528 성불하시여요	국 민 은 행	080522 성현미	국 민 은 행
080530 강영순	국 민 은 행	080528 김보라미	국 민 은 행	080530 김현미	국 민 은 행	080517 성현미	국 민 은 행	080530 셋넷학교	국 민 은 행
080528 강영실	국 민 은 행	080526 김산	국 민 은 행	080529 김현숙	국 민 은 행	080528 박주원	우 체 국	080516 소만초교	농협중앙회
080524 강용운	국 민 은 행	080527 김성록	국 민 은 행	080528 김효준	국 민 은 행	080528 박주원	우 체 국	080417 소만초교	농협중앙회
080528 강은철	국 민 은 행	080527 김שמ	국 민 은 행	080529 박지숙	국 민 은 행	080528 소름	국 민 은 행	080528 소름	국 민 은 행
080522 강인아	국 민 은 행	080427 김성섭	농협중앙회	080522 박지현	국 민 은 행	080528 송경희	국 민 은 행	080529 손관욱	국 민 은 행
080530 강준우	국 민 은 행	080528 김성순	국 민 은 행	080524 나성인원심	국 민 은 행	080408 박지현	농협중앙회	080527 손두성	국 민 은 행
080529 강준원	국 민 은 행	080506 김순이	농협중앙회	080529 남광	국 민 은 행	080524 박지윤	국 민 은 행	080528 손미옥	국 민 은 행
080519 감지호	국 민 은 행	080517 김순환	국 민 은 행	080526 남정호	국 민 은 행	080527 박찬도	농협중앙회	080529 손석구	국 민 은 행
080522 고병우	국 민 은 행	0805 김시중	국 민 은 행	080531 남중우	국 민 은 행	080528 박찬민	국 민 은 행	080526 손수현	국 민 은 행
080529 고수정	국 민 은 행	080530 김신숙	우 리 은 행	080529 노면선	국 민 은 행	080528 박창균	국 민 은 행	080530 손주주	국 민 은 행
080529 고수미	국 민 은 행	080526 김양근	국 민 은 행	080526 노시진	국 민 은 행	080529 박현정	국 민 은 행	080526 손영우	국 민 은 행
080527 고은별	국 민 은 행	080528 김연희	국 민 은 행	080513 노재성	농협중앙회	080526 박현주 회장	국 민 은 행	080424 손은아	국 민 은 행
080526 고은정	국 민 은 행	080528 김영란	국 민 은 행	080529 노혜숙	국 민 은 행	080526 박현규	국 민 은 행	080527 송순선	국 민 은 행
080531 고연숙	국 민 은 행	080522 김영미	국 민 은 행	080526 노수진	국 민 은 행	080522 박형진	국 민 은 행	080526 송윤순	국 민 은 행
080530 고창훈	국 민 은 행	080530 김영배	국 민 은 행	080528 노신경	국 민 은 행	080527 박혜성	국 민 은 행	080515 송인숙	국 민 은 행
080526 구영미	국 민 은 행	080526 김영애	국 민 은 행	080529 도광원	국 민 은 행	080529 박혜현	국 민 은 행	080527 송재중	국 민 은 행
080527 권신숙	국 민 은 행	080529 김영자	국 민 은 행	080526 당산종교단	국 민 은 행	080530 박재택	국 민 은 행	080529 송정우	국 민 은 행
080524 권연수	국 민 은 행	080530 김영희	국 민 은 행	080430 대한불교조계	농협중앙회	080506 박화정	우 체 국	080516 송진국	농협중앙회
080428 권영미	국 민 은 행	080529 김옥남	국 민 은 행	080529 도외주세요	국 민 은 행	080529 박효남	국 민 은 행	080524 송진국	국 민 은 행
080524 권영민	국 민 은 행	080530 김옥영	국 민 은 행	080528 동보아미인혜	국 민 은 행	080527 박효성	국 민 은 행	080529 순옥출	국 민 은 행
080528 권오봉	국 민 은 행	080527 김옥희	국 민 은 행	080525 도윤미길	국 민 은 행	080524 박희원(대진)	국 민 은 행	080528 신길호	국 민 은 행
080529 권태윤	국 민 은 행	080515 김원희	신 한 은 행	080529 동보아미인혜	국 민 은 행	080525 박희영	국 민 은 행	080523 신나리	국 민 은 행
080428 권영하주신숙	국 민 은 행	080530 김유옥	국 민 은 행	080528 두송용	국 민 은 행	080529 배광수	국 민 은 행	080513 신미화	농협중앙회
080430 김갑순	농협중앙회	080422 김용주	농협중앙회	080528 두용숙	국 민 은 행	080528 배광수	국 민 은 행	080526 신상근	국 민 은 행
080530 김간우	국 민 은 행	080530 김윤배	국 민 은 행	080529 대흥회	국 민 은 행	080527 북한간담지	국 민 은 행	080417 신상섭	국 민 은 행
080527 김경순	국 민 은 행	080526 김윤정	국 민 은 행	080528 류대현	농협중앙회	080528 배수환	국 민 은 행	080526 신상희	국 민 은 행
080528 김경애	국 민 은 행	080522 김윤태	국 민 은 행	080530 류정호	국 민 은 행	080523 배한성	국 민 은 행	080530 신석률	국 민 은 행
080519 김경희	국 민 은 행	080523 김은남	국 민 은 행	080417 배창무	국 민 은 행	080506 백경희	농협중앙회	080515 신선재	농협중앙회
080428 김계태	국 민 은 행	080526 김은수원심	국 민 은 행	080526 류희연	신 한 은 행	080523 박상순	국 민 은 행	080523 신순영	국 민 은 행
080516 김광원	신 한 은 행	080526 김은선복음빌	국 민 은 행	080528 무명	국 민 은 행	080528 배준철	국 민 은 행	080527 신현화	농협중앙회
080528 김금숙	국 민 은 행	080529 김은영	국 민 은 행	080528 무주상보시	국 민 은 행	080528 배한성	국 민 은 행	080502 신영희	국 민 은 행
080515 김금순	국 민 은 행	080530 김은일	국 민 은 행	080517 무주상보시	국 민 은 행	080526 배귀수한익	국 민 은 행	080518 신옥순	국 민 은 행
080528 김기영	국 민 은 행	080530 김인자	국 민 은 행	080502 무주상보시	와 환 은 행	080522 박신 박정옥	제 일 은 행	0805 신용남	국 민 은 행
080528 김기정	국 민 은 행	080527 김일기	국 민 은 행	080517 무주상보시	와 환 은 행	080528 부산 안승연	국 민 은 행	080529 신용덕(국회)	국 민 은 행
080529 김기홍	국 민 은 행	080402 김재송	국 민 은 행	080404 무주상보시	와 환 은 행	080518 부산김현미	국 민 은 행	080513 신정덕	농협중앙회
080407 김기환	농협중앙회	080530 김재호	국 민 은 행	080522 문나정	국 민 은 행	080412 부채살리자	국 민 은 행	080529 생계출판	국 민 은 행
080528 김남경	국 민 은 행	080528 김재희	국 민 은 행	080528 문정호	국 민 은 행	080527 북한간담지	국 민 은 행	080530 신현정	신 한 은 행
080519 김남희	국 민 은 행	080515 김점순	농협중앙회	080526 문희경	농협중앙회	080528 북한들기	국 민 은 행	080529 신혜원	국 민 은 행
080526 김다연	국 민 은 행	080526 김정리	국 민 은 행	080531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8 북한들기	국 민 은 행	080530 신홍순	국 민 은 행
080525 김대원	국 민 은 행	080531 김정미	국 민 은 행	080530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8 북한들기	국 민 은 행	080505 성경숙	국 민 은 행
080528 김동균	국 민 은 행	080522 김정실	국 민 은 행	080530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6 북한들기	국 민 은 행	080418 심두성	국 민 은 행
080528 김동택	국 민 은 행	080530 김정연	국 민 은 행	080529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4 북한들기	국 민 은 행	080524 심미성	국 민 은 행
080528 김희희	국 민 은 행	080529 김정옥	국 민 은 행	080528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30 북한통표들기	국 민 은 행	080526 심순섭	국 민 은 행
080526 김만우	국 민 은 행	080527 김정민	국 민 은 행	080529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7 미안합니다	국 민 은 행		
080527 김명숙	국 민 은 행	080529 김정주	국 민 은 행	080527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1 김명숙	우 체 국	080528 김정환	국 민 은 행	080527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414 김명숙	농협중앙회	080527 김정호	국 민 은 행	080526 미안하다	국 민 은 행				
080524 김명진	국 민 은 행	080526 김정희	국 민 은 행	080527 미안합니다	국 민 은 행				

미처리사

2008년 4월 1일~5월 31일

080519	심학섭	국 민 은 행	080527	윤학현	국 민 은 행	080527	이제니	국 민 은 행	080529	정유섭	국 민 은 행	080531	최성욱	국 민 은 행
080527	심정희	국 민 은 행	080528	윤해숙	국 민 은 행	080528	이종호	국 민 은 행	080528	정윤경	국 민 은 행	080528	최성현	국 민 은 행
080527	심진선	국 민 은 행	080528	윤혜인	국 민 은 행	080529	이주현	국 민 은 행	080523	정은미	국 민 은 행	080529	최숙영	국 민 은 행
080528	아로마피	국 민 은 행	080531	윤혜진	국 민 은 행	080527	이준서	국 민 은 행	080506	정은선	농협중앙회	0805	최순애	국 민 은 행
080523	아이진금구조	국 민 은 행	080523	윤호선	국 민 은 행	080502	이지연	국 민 은 행	080523	정은숙	국 민 은 행	080522	최승희	국 민 은 행
080527	안문자	국 민 은 행	080529	윤화현	국 민 은 행	080523	이지영	국 민 은 행	080530	정은숙(예식)	국 민 은 행	080527	최영자	국 민 은 행
080530	안상준	국 민 은 행	080529	은석초등학교	국 민 은 행	080527	이진경	국 민 은 행	080523	정은중	국 민 은 행	080526	최용선	국 민 은 행
080530	안성경	국 민 은 행	080528	은성초등학교	농협중앙회	080527	이치수	국 민 은 행	080529	정재호	국 민 은 행	080528	최윤선	국 민 은 행
080418	안성삼	국 민 은 행	080527	이강우	국 민 은 행	080513	이창주	국 민 은 행	080506	정재근	국 민 은 행	080528	최윤혁	국 민 은 행
080515	안옥희	농협중앙회	080530	이강주	국 민 은 행	080526	이찬걸	국 민 은 행	080529	정진숙	국 민 은 행	080529	최은경	국 민 은 행
080528	안재현	국 민 은 행	080509	이경국	우 리 은 행	080528	이춘하	국 민 은 행	080526	정철용	국 민 은 행	080530	최은혜	국 민 은 행
080529	안정희	국 민 은 행	080527	이경숙	신 한 은 행	080528	이태형	국 민 은 행	080529	정필석	국 민 은 행	080526	최재영	국 민 은 행
080529	양경미	국 민 은 행	080522	이경원	국 민 은 행	080526	이향숙	국 민 은 행	080530	정행자	국 민 은 행	080529	최재희	국 민 은 행
080529	양계화	농협중앙회	080523	이경호	우 체 국	080506	이향희	농협중앙회	080515	정현아	우 체 국	080528	최종관	국 민 은 행
080528	양순호	국 민 은 행	080529	이경화	국 민 은 행	080529	이혁재	국 민 은 행	080526	정현호	국 민 은 행	080529	최지연	국 민 은 행
080528	양순정	국 민 은 행	080522	이경훈	국 민 은 행	080502	이현규	국 민 은 행	080522	정형길	국 민 은 행	080530	최진호	국 민 은 행
080526	양영철(최혜)	국 민 은 행	080526	이경희	국 민 은 행	080523	이현규	국 민 은 행	080530	정환익(신정)	국 민 은 행	080430	최태연	농협중앙회
080528	양옥희	국 민 은 행	080528	이계삼	국 민 은 행	080516	이현희	국 민 은 행	080527	정홍찬	국 민 은 행	080530	최호각	국 민 은 행
080527	양용준	국 민 은 행	0805	이광숙	국 민 은 행	080531	이현정	국 민 은 행	080530	정해진	국 민 은 행	080528	최한태	국 민 은 행
080528	양익모	국 민 은 행	080528	이기만	국 민 은 행	080529	이현주	국 민 은 행	080522	정홍욱	국 민 은 행	080528	최혜정	국 민 은 행
080528	양진영	국 민 은 행	080527	이기정	국 민 은 행	080524	이혜인	국 민 은 행	080522	정홍찬	국 민 은 행	080530	최호각	국 민 은 행
080531	양호근	국 민 은 행	080408	이나라	농협중앙회	080513	이화순	농협중앙회	080513	정희재(최재)	우 리 은 행	080526	추경미	국 민 은 행
080523	양호근	국 민 은 행	080502	이남숙	국 민 은 행	080523	인도모자보급	외 환 은 행	080430	조경희	국 민 은 행	080509	황국규(장지)	외 환 은 행
080523	양윤식	우 체 국	080530	이다혜	국 민 은 행	080528	인봉	국 민 은 행	080407	조귀자	우 체 국	080523	태남(최재)	국 민 은 행
0805	연미경	우 체 국	080511	이대훈	국 민 은 행	080523	인상악초등학교	농협중앙회	080529	조규홍	국 민 은 행	080526	황조국(황재)	국 민 은 행
080526	연수고21	국 민 은 행	080428	이덕진	농협중앙회	080526	임영훈	국 민 은 행	080527	조미(최재)	국 민 은 행	080526	평남중화	국 민 은 행
080529	연수고27반	국 민 은 행	080530	이동진	농협중앙회	080529	임병민	농협중앙회	080515	조명순	우 체 국	080506	평남중화	국 민 은 행
080527	연지원	국 민 은 행	080527	이동규	국 민 은 행	080531	임영화	국 민 은 행	080527	조명희	국 민 은 행	0805	배명(이재)	국 민 은 행
080530	연지원(원지연)	국 민 은 행	080528	이동훈	국 민 은 행	080526	임익수	국 민 은 행	080530	조미희	국 민 은 행	080419	한재(최재)	농협중앙회
080530	연지원	국 민 은 행	080531	이두식	국 민 은 행	080430	임창숙	농협중앙회	080528	조병민	국 민 은 행	080407	한경복	우 체 국
080526	오경숙	국 민 은 행	080522	이명애(명화)	국 민 은 행	0805	임희근	국 민 은 행	080524	조병민	국 민 은 행	080516	한경희	국 민 은 행
080529	오미혜	국 민 은 행	080529	이리규	국 민 은 행	080530	절배주세우	국 민 은 행	080528	조성철	국 민 은 행	080528	한국(최재)	국 민 은 행
080505	오선주	국 민 은 행	080509	이명숙	농협중앙회	080509	장경숙	하 나 은 행	080530	조성운	국 민 은 행	080526	한규라	국 민 은 행
080529	오성훈	국 민 은 행	080531	이명윤	국 민 은 행	080528	장명영	국 민 은 행	080529	조영수	국 민 은 행	080519	한대륙	농협중앙회
080526	오재길	국 민 은 행	080525	이명희	국 민 은 행	080530	장미애	국 민 은 행	080530	조연희	국 민 은 행	080519	한성원	농협중앙회
080526	오준석	국 민 은 행	080528	이문열	국 민 은 행	080504	장병대	농협중앙회	080527	조욱현	국 민 은 행	080525	한성원	국 민 은 행
080528	오현광	국 민 은 행	080529	이문희	국 민 은 행	080523	장선숙	국 민 은 행	080530	조윤성	국 민 은 행	080526	한성민	국 민 은 행
080408	온새리문다빈(하 나)	은 행	080530	이미경	국 민 은 행	080526	장선영(장영희)	국 민 은 행	080530	조은란	국 민 은 행	080528	한승연	국 민 은 행
080528	온정숙	국 민 은 행	080530	이미순	국 민 은 행	080528	장승혁	국 민 은 행	080528	조은영	국 민 은 행	080531	한승희	국 민 은 행
080528	우대식	국 민 은 행	080528	이미아	국 민 은 행	080530	장연숙	국 민 은 행	080531	조은주	국 민 은 행	080529	한은정	국 민 은 행
080529	우미라	국 민 은 행	080527	이성필	국 민 은 행	080524	장만수	국 민 은 행	080527	조창희	국 민 은 행	080512	한정애	신 한 은 행
080525	우영옥	국 민 은 행	080526	이성훈	국 민 은 행	080528	장우창	국 민 은 행	080515	조장숙	국 민 은 행	080524	한형민	국 민 은 행
080526	우정민	국 민 은 행	080523	이서원	국 민 은 행	080529	장원지(지원)	국 민 은 행	080529	조정숙	국 민 은 행	080528	한형정(정숙)	국 민 은 행
080411	우지원	국 민 은 행	080528	이선동	국 민 은 행	080527	장재현	국 민 은 행	080526	조창태	국 민 은 행	080529	한기성	국 민 은 행
080523	우현주	국 민 은 행	080522	이선애	국 민 은 행	080526	장정복	국 민 은 행	080526	조현숙	국 민 은 행	080513	허영근	국 민 은 행
080403	원(최재)원	국 민 은 행	080530	이선희	외 환 은 행	080528	장정희	국 민 은 행	080527	조혜진(이재)	국 민 은 행	080528	허정희	국 민 은 행
080507	원복리마을	농협중앙회	080410	이성숙(원성사)	국 민 은 행	080528	장철호	국 민 은 행	080528	조혜진(이재)	국 민 은 행	080527	허순진	국 민 은 행
080531	위미화	국 민 은 행	080522	이성숙	농협중앙회	080530	장혜영	농협중앙회	080527	최순환(이재)	국 민 은 행	080524	현옥실	국 민 은 행
080527	유남형	국 민 은 행	080529	이수자	국 민 은 행	080528	장혜윤	국 민 은 행	080515	주선자	농협중앙회	080531	혜안심	국 민 은 행
080528	유대훈	국 민 은 행	080531	이순옥	국 민 은 행	080528	장희정	국 민 은 행	080530	주영(이재)	국 민 은 행	080515	홍상민	국 민 은 행
080530	유미정	국 민 은 행	080528	이순이	국 민 은 행	080528	전근두	국 민 은 행	080528	주은영	국 민 은 행	080507	홍영길	농협중앙회
080530	유민숙	국 민 은 행	080522	이윤기	국 민 은 행	080528	전상규	국 민 은 행	080529	주춘자	국 민 은 행	080417	홍영희	농협중앙회
080517	유성복	국 민 은 행	080528	이승숙(원성)	국 민 은 행	080531	전상원(전성훈)	국 민 은 행	080516	지미경	국 민 은 행	080523	홍윤의	국 민 은 행
0805	유상희	국 민 은 행	080518	이아람	국 민 은 행	080527	전순옥	국 민 은 행	080528	지선주	국 민 은 행	080526	홍지은	국 민 은 행
080528	유수연	국 민 은 행	080411	이양자	농협중앙회	080529	전(이재)원	국 민 은 행	080531	지숙옥	국 민 은 행	080528	홍진숙	국 민 은 행
080529	유승열	국 민 은 행	080507	이연숙	우 체 국	080507	전우정	국 민 은 행	080517	차광미	국 민 은 행	080526	홍현기	국 민 은 행
080527	유승훈	국 민 은 행	080521	이연우	국 민 은 행	080530	전은경	국 민 은 행	080421	차윤열	국 민 은 행	080530	황두연	국 민 은 행
080523	유영도	신 한 은 행	080529	이연주	국 민 은 행	080527	전재현	국 민 은 행	080526	차현영	국 민 은 행	080526	황성열	국 민 은 행
080522	유진아	국 민 은 행	080528	이연지	국 민 은 행	080529	전해정	국 민 은 행	080531	차해정	국 민 은 행	080502	황순옥	국 민 은 행
080529	유철남	국 민 은 행	080528	이영식	국 민 은 행	080508	장경자	국 민 은 행	080516	참희마을	국 민 은 행	080523	황용배	국 민 은 행
080530	유필어	국 민 은 행	080531	이영애	국 민 은 행	080523	장영희(최재)	국 민 은 행	080526	차정민	국 민 은 행	080530	황재옥	국 민 은 행
080530	육해정	국 민 은 행	080528	이영혜	국 민 은 행	080526	장길숙	국 민 은 행	080523	채진연	국 민 은 행	080509	황지원	국 민 은 행
080527	윤기자	국 민 은 행	080527	이옥순	농협중앙회	080529	장필순	국 민 은 행	080530	천유미	국 민 은 행	080527	황지태	국 민 은 행
080430	윤낙영	국 민 은 행	080527	이연택	국 민 은 행	080526	장민영	국 민 은 행	080523	최경미	국 민 은 행	080529	황재(이재)원	국 민 은 행
080529	윤대영	국 민 은 행	080528	이은숙	국 민 은 행	080528	장민희	농협중앙회	080529	최경섭	국 민 은 행	080522	황혜경	국 민 은 행
080529	윤대원	국 민 은 행	080528	이은선	국 민 은 행	080528	전선숙	농협중앙회	080528	최경순	국 민 은 행	080517	황효순	국 민 은 행
080528	윤병국	국 민 은 행	080530	이은영	국 민 은 행	080524	장수희	국 민 은 행	080530	최경호	국 민 은 행	080527	후원금	국 민 은 행
080527	윤서민(김)	국 민 은 행	080523	이인규	국 민 은 행	080522	장순임	국 민 은 행	080516	최경희	농협중앙회	080530	DN(최재)원	국 민 은 행
080528	윤석현	국 민 은 행	080528	이정선	국 민 은 행	080528	장영수	국 민 은 행	080530	최명심	신 한 은 행	080530	VJ(공대)	국 민 은 행
080528	윤수영	국 민 은 행	080527	이정영	국 민 은 행	080527	장원계	국 민 은 행	080513	최명심	신 한 은 행			
080528	윤숙	국 민 은 행	080526	이정현	국 민 은 행	080526	장필식	국 민 은 행	080530	최명희	국 민 은 행			
080526	윤준섭	국 민 은 행	080528	이정희	국 민 은 행	080521	장규(최재)	국 민 은 행	080531	최미정	국 민 은 행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합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140-003-963427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 체 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 민족, 종교,
계급,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서로 만나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